

# GLOBAL HUF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GAZINE

2019 SUMMER Vol. 104

## Cover Story

송도 부지  
1단계 개발 공사

## Special Theme

65년 글로벌 프론티어 HUFES,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융복합 교육을 이끈다

## HUFES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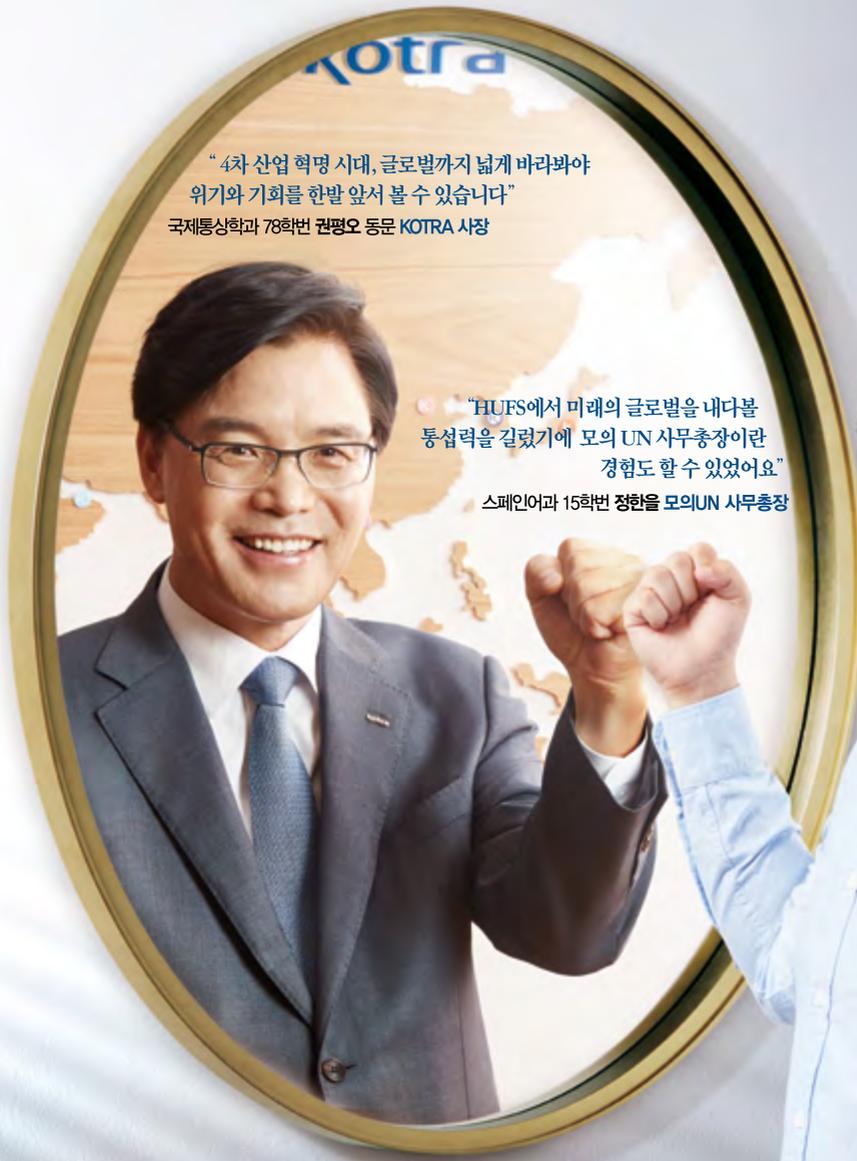
HUFES 인문학 연구의  
현재와 가능성

## HUFES Topic

QS 세계대학평가  
국내 종합대학 8위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4차 산업 혁명 시대, 글로벌까지 넓게 바라봐야  
위기와 기회를 한발 앞서 볼 수 있습니다”  
국제통상학과 78학번 권평오 동문 KOTRA 사장

“HUFS에서 미래의 글로벌을 내다볼  
통섭력을 길렀기에 모의 UN 사무총장이란  
경험도 할 수 있었어요”  
스페인어과 15학번 정환을 모의UN 사무총장

# Come to HUFS Meet the World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융복합 교육으로  
내일을 행복하게 살아갈 당당한 인재를 길러냅니다



\* 전 세계 94개국 757개 대학/기관과 교류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Global HUFS

## 2019 SUMMER Vol. 104

65년 글로벌 프론티어 HUFS,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융복합 교육을 이끈다

### SPECIAL THEME

- 02 **Cover Story** 송도 부지 1단계 개발 공사
- 04 **Special Theme** 65년 글로벌 프론티어 HUFS,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융복합 교육을 이끈다
- 08 **Theme Interview**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포르투갈어 71  
세계 어디서나 나라를 생각하며 최중현 前 주네덜란드왕국 대사, 정치외교 76
- 12 **HUFS Interview** 이 남자의 기타와 인생 김종구 「오후의 기타」 저자, 한겨레 편집인, 정치외교 77  
한국과 터키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오종진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터키문화원 원장,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  
대담한 도전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다  
세계 최대 경영과학 학회 INFORMS '2019 Analytics & O.R Student Team Competition' 3등상 수상  
조진영 산업경영공학과 12 / 이유경 산업경영공학과 15 / 강문정 산업경영공학과 15
- 20 **HUFS Talk** HUFS 인문학 연구의 현재와 가능성  
임대근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 / 김용정 인도연구소 HK연구교수 / 김지현 철학과 16
- 24 **Global Memoirs** 아너스 프로그램, 꿈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다 변정호 체코-슬로바키아어과 14
- 26 **I am HUFS** 명불허전, 우리 프로 박영곤 외대통역협회(USIA) 회장, 스칸디나비아어과 14
- 28 **Global Issue** 5G 이동통신과 초연결 지능사회 김희동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 HUFS NEWS

- 32 **HUFS Topics** QS 세계대학평가 국내 종합대학 8위  
장인탁(스페인어 76) 강의실 헌정식  
중남미연구소, 2019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 착수  
개교 65주년 기념식 개최
- 36 **HUFS Today**
- 41 **HUFS Academies**
- 44 **HUFS Professors**
- 45 **HUFS Institutes**
- 47 **CUFS News**
- 48 **HUFS Books**

### ALUMNI & DONATION

- 51 **HUFS Alumni**
- 53 **HUFS Donation**

# Cover Story

---



# 송도 부지 1단계 개발 공사

우리 대학은 지난 5월 말, 송도 부지에서 1단계 개발 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우리 대학 송도 부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지구에 포함된 교육 연구 시설 용지다. 대지면적은 43,595㎡(13,210평)이고, 주위에 문화 및 근린 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더불어 캠퍼스 동쪽으로는 바이오 기업이 위치해 산학 연계 연구 활동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송도 부지는 모두 3단계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1단계 개발 공사는 전체 대지면적의 약 20%인 8,374㎡(2,538평)의 부지를 개발하는 공사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면적 2,680㎡(812평) 규모의 다목적 강의동 '외대국제교육센터'가 새롭게 들어선다. 외대국제교육센터에는 강의실 15실과 행정동, 전시실, 소강당 등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친환경 인조 잔디가 설치된 풋살 경기장과 주차장이 부대 시설로 건설될 예정이다.

## 송도 부지 개발 공사 1단계 경과 내용

- 2018. 11. 송도 부지 개발 추진위원회 발족
- 2019. 1. 송도 부지 개발 계획 이사회 승인
- 2019. 2. 설계업체 선정
- 2019. 2~4. 마스터플랜 및 건축 허가 도서 작성
- 2019. 5. 감리 및 시공사 선정
- 2019. 5. 건축 허가 완료
- 2019. 6~12. 송도 부지 1단계 개발 공사
- 2019. 12. 준공 예정



# 65년 글로벌 프론티어 HUFS,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융복합 교육을 이끈다

개교 65주년을 맞은 한국외대는 국내 최고의 글로벌 리딩 대학으로 인정받는다.

다른 대학보다 더 일찍부터 세계적 교육의 흐름인 융복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융복합 인재를 꾸준히 양성하고 있다.

## 글로벌 융복합 교육의 선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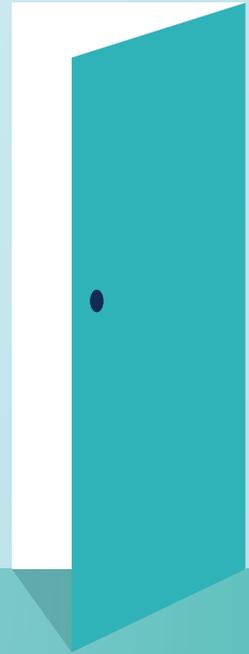
한국외대는 글로벌 융복합 교육의 산실로 명성이 자자하다. 한국외대의 글로벌 융복합 교육의 중심에는 LD(Language & Diplomacy)학부와 LT(Language & Trade)학부, GBT(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중국외교통상학부, 융합일본지역학부 같은 융복합 학과가 있다. LD학부는 국내 최초의 국립외교원 진출을 위한 외교 분야 전문 지식 교육 학부고, LT학부는 외국어와 통상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통상직 고위 공무원 양성 학부다. GBT학부는 한국외대만의 특화된 언어와 지역 교육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IT, 경영학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바이오메디컬공학부는 차세대 핵심 분야로 자리잡은 글로벌 바이오 산업 분야 전문 지식 교육 학부다. 중국외교통상학부는 중국 관련 외교와 통상 분야 전문가 양성 학부고, 융합일본지역학부는 일본 지역학에 정통한 일본 전문가 양성 학부다.



융복합 학과 외에 융합 전공 역시 한국외대의 글로벌 융복합 교육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다. 한국외대의 융합 전공은 EU(유럽연합) 전공과 BRICs(브릭스) 전공, 국가리더 전공, 동북아외교통상 전공, 문화콘텐츠 학 전공이 대표적이다.

EU 전공은 EU의 정치, 경제, 사회 및 역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교과 과정을 제공한다. BRICs 전공은 신흥 경제 5국으로 알려진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및 역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교과 과정을 선보인다. 국가리더 전공은 리더가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과 능력을 배우는 교과 과정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은 준비된 차세대 국가 리더로 거듭나기 충분하다. 또한 동북아외교통상 전공은 국제정치학과 국제경제학을 바탕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북부 지역 즉, 한국과 일본, 중국,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 지역, 시베리아를 포함한 광활한 지역의 외교 및 통상 전문가를 양성한다. 문화콘텐츠 학 전공은 콘텐츠의 기획,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교과 과정으로 인문학과 사회 과학 내부의 다양한 전통적 분과 학문뿐만 아니라 문화 연구, 문화 기술 등 여러 신흥 학문 연구의 이론과 방법을 통섭한다.

그밖에 디지털인문한국학 전공과 세계문화예술경영 전공, 언어와공학 전공 등이 있다. 디지털인문한국학 전공은 한국의 인문학적 전통과 문화에 대한 심층적 지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해외 송출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지식 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세계문화예술경영 전공은 로컬리즘적 융합 능력을 토대로 인문학적 가치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해 문화 산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문화 예술 코디네이터를 양성 과정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언어와공학 전공은 체계적 언어학 지식과 수준 높은 외국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과학적 데이터 분석 및 실용 시스템 개발 응용력을 겸비한 미래형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세계적 흐름을 반영해 개설한 이들 전공은 학생들을 글로벌 융복합 인재로 거듭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 캠퍼스 통합으로 이뤄낸 융합 교육의 시작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의 캠퍼스 통합 역시 글로벌 융복합 교육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중 전공과 연계 전공이 가능해지면서 학생들이 전공·학부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전문성과 다양성으로 무장한 글로벌 프로그램

한국외대가 선보이는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역시 글로벌 융복합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된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아너스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및 기업의 해외 진출 맞춤형 교육을 통한 HUFH Honors 전략지역 전문 인재 양성 제도로 해외 연수 1학기 및 해외 인턴 1학기 이 이뤄진 1년 과정이다. 그다음으로 7+1 파견학생 제도는 8학기의 대학 재학 기간 중 최소 1학기를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또한 교환학생 제도와 복수학위 제도가 있다. 교환학생 제도는 한국외대의 해외 자매 대학과 학생 및 학점 교환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은 뒤 학생들을 1:1로 교환해 상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복수학위 제도는 학생들을 파견할 대학과의 상호협정에 따라 한국외대에서 2년, 파견 대학에서 2년을 공부한 뒤 두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미국 뉴욕주립대 오스위고, 대만 대만국립사범대학교에서 가능하다.

그외 자비유학 제도는 한국외대 정규 학기 동안 외국 대학에서 공부한 뒤 그 기간 동안의 학기와 취득 학점을 한국외대에서 인정받는 제도다. 학과장 승인을 받은 4년제 대학이면 세계 어디든 가능하므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다.

## CORE 사업, 인문 기반의 글로벌 융복합 인재 양성

한편, 한국외대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CORE.코어)' 학교 중 하나로 지정돼 인문 기반의 글로벌 융복합 인재 양성을 배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은 기초 학문인 인문학을 육성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다. 교육부가 대학 19곳을 선정해 지원하는데 한국외대가 이런 국가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우수한 인문학 교육과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WHAT IS THE NEXT?



## Theme Interview

---



“대학 시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님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그 역량을 어떻게 기를지 꾸준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

세계 제1의 조선사가 되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포르투갈어 71)

한국외대 개교 65주년 기념식의 'HUFS AWARDS' 수상의 영광은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에게 돌아갔다.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 제1의 조선사 수장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그에게 기업가로서의 삶과 열정에 대해 물었다.

● 한국외대 개교 65주년 기념식 'HUFS AWARDS'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하니 대학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경영인으로서의 저를 높이 평가해주신 김종철 이사장님과 김인철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1978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뒤 현대중공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한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니까?

어린 시절 농촌에서 자라며 새벽 일찍 일어나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이런 일상이 습관화된 저에게 현대중공업의 사훈 '근면, 검소, 친애'는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도전 정신'으로 대표되는 현대 정신이 저의 열정과 잘 맞았습니다. 반세기 전에 현대중공업은 허허벌판에서 시작했고, 그 설립 과정 역시 무모할 정도로 과감했습니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반대할 때 명예회장의 답은 "이봐, 해봤어?"였습니다. 강인한 도전 정신이 뿌리박혀 있는 기업에 저 또한 녹아들었고, 정직하고 원칙을 지키며 사회에 공헌하는 현대의 경영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기업가로서의 지난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41년 전, 현대중공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사장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가졌습니다. 그 꿈이 현실로 이뤄져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로 취임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 시절 저는 매주 화요일 새벽 5시에 차를 타고 서울에서 충남 대산에 있는 정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근면한 생활 태도 덕인지, 피곤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면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직원들과 많이 만나며 현장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이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많이 고민했고, 고민한 부분을 하나씩 펼쳐나간 순간순간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많이 납니다.

● 우리나라 최초로 전 직원이 본인 급여의 1%를 기부하는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을 설립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부 문화를 만드는데 힘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품앗이가 일상인 농촌에서 성장하면서 부모님께서 주변과 나누던 모습을 익숙하게 봐왔고, 나눔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대오일뱅크 사장으로 부임하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급여 1% 기부 아이디어는 직원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당시 대기업에 다니는 것이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 이웃을 위해 뭔가 도움을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특히 1% 나눔 캠페인은 노사가 같은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급여 나눔 실천 사례가 현대오일뱅크에 국한되지 않고 널리 확산돼 한국 사회의 기부 문화가 꽃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 캠페인을 현대중공업 그룹 차원으로 확대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 세계 제1의 조선사 대표로서,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기를 꿈꾸는 모교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준한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책과 운동을 항상 가까이 할 것을 추천합니다. 독서는 관성에 빠지지 않도록 새로운 세상과 사고를 접하게 해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운동은 사회에 나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큰 버팀목이 됩니다. 하루하루,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기 관리 시간을 꼭 가지기 바랍니다.

## 세계 어디서나 나라를 생각하며

어느 외교관의 단상  
최종현 前 주네덜란드왕국 대사(정치외교 76)

지난 4월 19일 열린 한국외대 개교 65주년 기념식에서 'HUFUS AWARDS'를 수상한 최종현 前 주네덜란드왕국 대사.

33년간 외무 공무원으로 봉직한 그의 이야기는 동문과 후배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였다.

● 한국외대 개교 65주년 기념식 'HUFUS AWARDS'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에게는 과분한 상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모교인 외대를 각별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모교로부터 큰 상을 받아 매우 기쁘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외교부 부대변인, 주오만왕국 대사, 의전장, 주네덜란드왕국 대사 등을 역임하면서 33년 동안 외무 공무원으로 나라를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언제 외교관의 꿈을 갖게 되었는지 기억이 가물거립니다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외교관의 길을 가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분명합니다. 무척 갈망했던 직업을 얻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또한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직업이 사회에 대해 기여를 하겠지만 공무원은 고용주가 나라이다 보니 더욱 보람을 느끼며 일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간혹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워낙 갈망했던 직업인지라 그러한 순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 외교관으로서의 삶을 돌이켜볼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특히 기억에 납니다. 하나는, 2004년 봄 본부 유엔과장 재직 시 제주도에서 열린 북태평양해양과학기술기공 회의에서 국제 사회에서의 '동해' 명칭과 '일본해' 명칭간 대립과 관련하여 회원국 6개국의 투표 끝에 그 기구에서의 '동해' 병기 방침을 지지했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 때의 기쁨과 흥분을 잊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주 오만왕국 대사 시절, 2011년 1월 해군 청해부대가 인도양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하였을 때 그리고 사후 조치와 관련하여 오만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하여 현지 대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였을 때였습니다.

● 외교부 본부에 근무하면서 부내 한국외대 동문회 회장직을 맡아 재학생 후배들에게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후배들에게 강조한 점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무언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후배들을 만나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시간이며, 20대 초중반의 시기는 꼭 갖고 싶은 직업을 정하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한 노력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격려했습니다.

● 한국외대 방문이 오랜만이실 텐데, 세계 속의 대학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모교를 직접 보니 어떻습니까?

외교부에 들어와 해외 근무 등 사정으로 모교를 다시 찾은 건 졸업하고 25년쯤 지난 뒤였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 '학교의 공간이 좀 좁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찾은 학교는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러 시설과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경이롭게 느껴지는 동시에 '바로 이런 점이 외대의 특성이자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의 창조적 성취를 이뤄내는 외대 정신 말입니다.

● 외교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가 되기를 꿈꾸는 한국외대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길은 그만큼 힘든 길입니다. 한번 뜻을 세웠으면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여 뜻한 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은 항상 나라를 생각하며 일하는 길로서 큰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직업입니다. 외무 공무원은 여러 나라에서 살아 보는 기회를 통해 다양한 문화, 전통 그리고 풍물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외교관은 특히 우리 외대와 어울리는 직업입니다. 많은 후배가 외교관의 길에 들어서길 바라며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길은 그만큼 힘든 길입니다.  
한번 뜻을 세웠으면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여 뜻한 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 H



# F

# U

# HUFS INTERVIEW

「오후의 기타」 저자

**김종구** 한겨레 편집인, 정치외교 77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터키문화원 원장

**오종진**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

세계 최대 경영과학 학회 INFORMS

‘2019 Analytics & O.R Student Team Competition’ 3등상 수상

**조진영** 산업경영공학과 12

**이유경** 산업경영공학과 15

**강문정** 산업경영공학과 15



# S

이 남자의 기타와 인생

지난 5월 23일 한국외대에서 열린 '기타와 글쓰기' 북콘서트 연사로 나선 한겨레 편집인 김종구 동문.

클래식 기타를 소재로 한 에세이 「오후의 기타」를 펴내기도 한 그가

기타와 글쓰기, 그리고 인생에 대해 들려주었다.

- 에세이 「오후의 기타」를 통해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나이로 쉰 세 살에 클래식 기타를 시작해 꼬박 10년을 배웠습니다. 그 경험을 책으로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우리의 삶에서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 언제든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는 것이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음악에 막연한 동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자극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담았습니다.

- '기타와 글쓰기' 북콘서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젊기 때문에 '인생의 오후' 이런 말이 피부로 잘 와 닿지 않을 겁니다. (웃음) 그래서 우선은 '기타와 글쓰기'라는 북콘서트의 주제에 충실했습니다. 좋은 글은 어떤 것인지, 기타 연습이 글쓰기를 어떻게 변모시켰는지, 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음악성이나 리듬감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 기타 연습의 수칙에 빗대 우리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타의 가장 중요한 수칙은 'Slow, Loud, Clear'입니다. 느리게 큰 소리로 명료하게 또박또박 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여기에 'Steady'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세월의 축적 앞에는 모든 것이 무력화되는 법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30년 넘게 언론인으로 살고 있는데,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간혹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되면 제가 몸담고 있는 한겨레신문이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급기와 성역을 어떻게 깨뜨려 왔는가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대학 동문이기도 한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를 비롯해 양심적 병역 거부, 한국군근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삼성 비자금 사태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저의 생생한 취재 뒷이야기 등을 섞어 이야기하는 방식이지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한겨레21> 편집장 시절 다룬 양심적 병역 거부인 것 같습니다. 언론으로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사회적 중요한 의제로 제기 했는데, 그 뒤 우여곡절 끝에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것을 지켜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협) 회장으로 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갈수록 신문의 상황이 어려워지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이 신문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안목을 넓혀가기 원합니다. 바르고 정확하고 진실된 보도,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명쾌한 논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 당면한 최대의 위기는 신뢰 상실인데, 저는 편협 회장 취임사에서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언론계 바깥이 아니라 내부가 돼야 한다. 각 신문사마다 추구하는 철학과 이념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고 해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쌓아갈 때 독자의 신뢰도 돌아올 것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한국외대 방문이 오랜만일 텐데, 모교를 직접 보니 어땠습니까?

8~9년 전에 모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느라 자주 학교에 왔습니다. 저희가 다닐 때와 비교도 되지 않게 학교가 좋아졌다고 느꼈는데, 다시 오니 더 활기가 넘치네요. 오늘 '북콘서트' 예정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는데 마침 축제가 시작된 날이더군요. 본관 앞에 앉아 오랫동안 축제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후배들 한명 한명 모두 밝고 씩씩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 언론인을 꿈꾸는 모교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습기자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글쓰기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나 충고하자면, 평소 문장을 짧게 끊어 쓰는 훈련을 많이 하세요. 글에 서툰 사람일수록 문장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되도록 짧은 문장으로 쓰고, 각 문장마다 표현과 수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면 글쓰기 능력이 훨씬 향상될 것입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려주세요.

그동안 정직하고 곧은 언론인이라고 평가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눈팔지 않고 언론인 외길 인생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그동안의 현장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활동도 하고 싶고요. 아,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기타를 더욱 잘 치는 것이죠. 실력을 더욱 갈고 닦아 멋진 콘서트를 열어보겠다는 아무진 꿈도 갖고 있습니다.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터키문화원은 터키 정부가 공공 외교의 일환으로**

**2009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문화원으로, 우리나라에는 지난 3월 1일 한국외대에 처음 생겼다.**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터키문화원 원장을 맡은 한국외대 오종진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를 만났다.**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터키문화원 원장**

**오종진**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

●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Yunus Emre Institute) 터키문화원 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터키문화원이 공식적으로 개설돼 무척 기쁩니다. 앞으로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터키문화원 한국 측 원장으로서 한국과 터키의 긴밀한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터키문화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터키 언어의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해 언어 교육에 중점을 둡니다. 터키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 터키어를 알리고, 터키 언어를 통해 터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터키어를 기초로 해서 전통 놀이, 전통 문화, 의상, 사진 등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선보임으로써 터키를 더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성남시에서 주최한 '다문화축제'에서 터키의 음식 문화와 커피, 유적지 등을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6월에는 터키의 초중고 교사 11명이 우리나라 학교를 찾아 학생들이 터키의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터키문화원 원장으로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려주세요.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터키문화원 원장으로서 할 일은 한국과 터키간의 교류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과 터키의

정치·경제적 관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국제적으로 터키는 항상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지난 2012년 한-터 FTA를 체결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과 중동,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교두보로서 터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민간 교류나 문화 교류는 다소 어렵다고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터키 문화를 소개하는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청 소속 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과 공동으로 내년 7월 터키의 커피와 관련된 유물 기획 전시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커피의 본류는 터키입니다. 1555년경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커피 하우스 즉, 커피숍을 운영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문화 교류, 사상 교류, 정치 교류, 사교의 장이었죠. 당시 쓰였던 커피잔 등 터키의 커피와 관련된 유물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터키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하는 전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터키를 좀 더 가깝게 여기게 되기 바랍니다.

●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터키문화원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과 터키 사이의 관계를 좀더 좋게 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인과 터키인이 형제 관계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본질적, 문화적, 언어적 이유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니다. 실제로 우리 한민족과 터키가 속해 있는 투르크족은 알타이 문화권으로서 활쏘기 문화, 씨름, 팽이치기 등 역사적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질적 발굴 작업을 해나감으로써 '이래서 우리가 형제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 한국외대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글로벌 융복합 역량과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휴대전화나 자동차 등 공산품을 수출하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였는데, 한류 덕분에 제조업 외에 금융이나 문화 등을 수출하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CGV는 터키의 극장을 인수해 터키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극장을 운영하고 있고, CJ E&M은 터키의 영화·드라마 제작업체를 인수해 터키에서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외대 학생들의 글로벌 융복합 역량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는 지역전문가로서 단순히 세일즈를 담당했다면, 이제는 무형의 문화를 같이 만들어내는 지역전문가로 거듭나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터키문화원에서 여름 운영할 예정인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터키문화원 여름학교-터키 고고학, 영화, 문학'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터키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대담한 도전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다

한국외대 산업경영공학과 조진영, 이유경, 강문정 학생이 세계 최대의 경영과학 학회에서

3등상을 수상해 큰 화제를 모았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참가한 292팀 중 본선 6팀에 올랐고,

마침내 3등상을 수상한 것이라 더욱 값지다.

그들을 만나 대회 도전 계기부터 3등상 수상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들었다.

● INFORMS '2019 Analytics & O.R Student Team Competition' 3등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강문정** 세계 최대 규모의 경영과학 학회인 'INFORMS' 최종 본선에 오르고, 3등상까지 수상해 정말 기쁩니다. 지도교수님인 이충목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님께서 전체 방향을 잘 잡아주고 조언을 많이 해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유경** 최종 본선에 진출해 발표할 때 모든 과정을 영어로 진행했는데, 그 경험이 무척 새로웠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얻어 더욱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 이번 대회에 'A combined approach of reinforcement learning and mathematical programming for a real-world outbound supply chain optimization'이라는 주제로 참가했습니다.

대회 주제는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저장 창고인 VDC(vehicle distribution center)를 거쳐 딜러에게 어떻게 배송할 것인지 경로를 짜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율주행 차량까지 고려해야 했죠. 일반적으로 차량 배송 문제는 풀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번 대회는 제너럴모터스(GM)에서 후원해 실제 G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수리계획법과 강화학습을 결합해 풀었습니다.

● 대회 도전 계기부터 3등상 수상까지 과정을 들려주세요.

지난해 11월 이충목 지도교수님께서 대회 정보를 알려줘 준비하기 시작했고, 1월 중순 패이널 리포트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각자 한 부분씩 맡아 진행했습니다. 네트워크 디자인(network design)은 강문정,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은 조진영, VRP 휴리스틱(vehicle routing problem heuristics)은 이유경 담당이었죠. 3월 초 최종 본선 6팀이 결정됐고, 그중 1팀으로 저희가 뽑혀 미국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표 자료와 대본 모두 영어로 준비해야 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사히 발표했고 3등상을 수상했습니다.

● 대회 참가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조진영** 이번 대회의 문제를 푸는 방식은 학교 교과목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지도교수님께서 준 책을 혼자 공부하면서 만들어 나간 것이라 어려웠습니다. 구현 자체가 쉽지 않아 시행착오가 무척 많았습니다.

**이유경** 실제 G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었는데, GM 데이터 양이 방대했습니다. 차량 170만대의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적용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까지 모두 힘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경영과학 학회 INFORMS

'2019 Analytics & O.R Student Team Competition'

3등상 수상

조진영, 이유경, 강문정 산업경영공학과 12, 15, 15

● 3등상 수상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유경** 팀이지만 개개인이 독립적 부분을 맡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또한 세계적 규모의 큰 대회를 경험한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조진영** 개인적으로 다른 무엇보다 목표를 한 가지 정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끝까지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문정** 본선에 오른 최종 6팀 중 1팀으로 뽑혀 영광스럽습니다. 좋은 지도교수님과 팀원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과 선배님들의 수상에 이어 올해도 상을 받게 돼 더 뜻깊습니다. 솔직히 한국외대는 공대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는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대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과 꿈은 무엇입니까?

**조진영**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데이터 분석 직무에 더 많은 관심이 생겨 공부하고 있고, 데이터분석가나 시스템개발자로 취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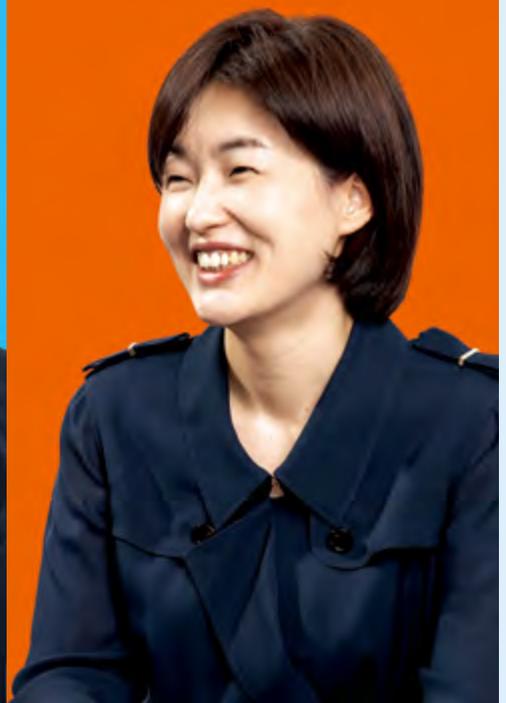
**강문정**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한국외대 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당장은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유경** 이번 학기를 마치면 졸업이고, 이어 고려대 대학원 산업경영공학부에 입학 예정입니다. 대학원에서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과 AI 분야에 관해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人

文

學



## HUFS 인문학 연구의 현재와 가능성

**HUFS는 인문학 육성 및 연구의 대표주자로 손꼽힌다.**

**HUFS 인문학 연구의 현재와 가능성에 대해 임대근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문화콘텐츠학 융합전공 주임교수)와**

**김용정 인도연구소 HK연구교수, 김지현 철학과 학생이 이야기나눴다.**

**임대근** 우리 대학은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54년에 설립됐습니다. 전문적 외국어 교육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생긴 것입니다. 당시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통로로 생각한 분야가 바로 인문학을 대표하는 영역인 문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설립의 시작이 이렇다 보니 외대가 인문학적 마인드와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정** 우리 대학은 개교 이래 현재까지 외국어, 특히 특수외국어에 특화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는 다른 지역의 문화, 인간, 사회, 국가 등을 알기 위한 기본 수단이며, 이를 더욱 깊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언어의 벽이 없어야 그 사람이 더욱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에게 외국인도 친밀하게 느끼고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외국 양쪽에서의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을 아는 힘, 다른 사람과 다른 문화권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을 더욱 증가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학문으로 이어질 수 있게 연결시킵니다. 외대는 외국어 역량 덕분에 자연적이면서도 열정적으로 인문학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근** 우리 대학 인문학 연구의 대표적 사례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CORE·코어)'을 들 수 있습니다. 외대의 학과 수십 개가 참여한 코어 사업은 인문학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고, 단순한 원포인트 식의 학문이 아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의 융합 학문으로서의 인문학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외대 인문학 연구에서 HK(+)

사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HK(+) 사업은 러시아사업단과 세미오시스연구사업단, 아프리카사업단, 인도사업단, 중남미사업단, 역사문화사업단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지역별 영역에 기초한 인문학 체계를 잘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형 인문학 연구와 보급, 교육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정** 교수님께서 우리 대학 인문학 연구의 대표적 사례를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인도연구소 HK+ 사업단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도연구소는 지난 2017년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지원사업 해외 지역 부문에 선정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3년)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단계(4~7년) 연구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인도의 대전환과 인도학의 한국적 재해석'이라는 아젠다 아래 5개 분과인 종교·철학, 언어·문학, 사회·문화, 정치·경제, 역사 분과에서 각각 세부 아젠다를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인문학 센터인 '간디아슈람'을 개설해 인도 인문학의 대중화 및 사회적 서비스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임대근** 우리 대학이 이런 다양한 인문학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다 보니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1세기는 20세기와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과학기술과 미디어·통신 발달 등이 우리 삶을 엄청나게 바꿔놓았습니다. 동시에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등장함으로써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더 이상 20세기의 사고 방식으로 21세기를 살아가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던지는 문제는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길러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자신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던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문학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고 다른 사람과 공존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공생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근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문화콘텐츠학 융합전공 주임교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문학을 통해 21세기의 낯선 환경 속에서 새로운 문제를 끌어안고 다른 사람과 공존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공생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지현** 제 생각 역시 교수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철학과 인문학은 결국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나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인문학의 주된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를 통해 21세기에 어떤 삶을 살 것이고,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다가갈 것인지에 대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정** 우리가 맞이한 새로운 시대는 사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얼마나 조화롭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 지역학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기본적 시각을 삼각형이라고 할 때 다른 나라의 언어나 문화, 사상을 알면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이 되고, 더 나아가 아주 많은 각이 생기면서 원이 됩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나 문화 등을 이해함으로써 원이 되는 시각 즉, 유연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외대의 힘인 것 같습니다.

**임대근** 앞으로 우리 대학 인문학 연구는 두 가지 방향을 꼭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근본적 문제로, 인문학을 통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통찰력을 잘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인문학을 대표하는 영역인 문학이 가진 예술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인문학이 예술적 감수성을 잘 키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어떤 상황을 목도했을 때 자신의 사고가 전적으로 맞다, 그르다는 판단을 성급히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에 대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생각한 것을 글로 남기거나, 공부 모임이나 독서 모임, 학회 활동을 하는 것도 인문학도로 거듭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김용정 인도연구소 BK연구교수

에 하나를 더 붙이면 21세기가 요구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 능력, 도구적 수행 능력이 더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대 인문학 연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구체적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먼저, 통찰력을 키우려면 책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책이든 좋으니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 예술을 잘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캠퍼스 내 오케스트라 연주, 그림 전시회, 공연, 영화 상영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식이죠. 교육과정이나 비교과과정에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현** 우리가 흔히 주요 선진국, 서구 세계라고 하는 나라의 일반적 예술이 아닌 제3세계 예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언어가 다르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세계에 살아가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어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 낮춰주는 게 바로 음악이나 춤, 노래 같은 비언어적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술에 대한 이해가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나 자신에 대한 이해로 넘어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 외대가 선두 주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정** 앞으로 우리 대학 인문학 연구가 두 가지 큰 방향으로 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는 기본에 충실한 연구입니다. 외대에는 현재 문학, 철학, 역사와 같은 분야의 원전 읽기, 고전 번역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것지만 다소 오랜 노력을 요하는 과목이 적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전 읽기는 높은 외국어 능력을 요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어 능력

이 어느 궤도에 오를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고전은 더욱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교과목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기초적인 외국어 능력을 함양했다면 고전 읽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기본 고전을 번역하고 원전을 공부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부 변화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어문학과 관련된 인문학의 경우 특정 권역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문화권과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에서도 역사, 문학, 철학을 묶는 학제간의 통합적 연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연구소와 연구소, 학과와 학과, 연구원과 연구원, 분과와 분과를 묶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김지현** 학생들에게 인문학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철학과'라고 하면 대부분 놀라는 반응을 보이며 "철학은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이 철학을 너무 학문적이거나 원론적으로 이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문학,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쉬운 단계부터 접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게 책일 수 있고,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 있고, 여럿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일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이 누구인지,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계는 무엇을 위해 있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외대에는 언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당 언어 문화권이나 해당 언어가 쓰이는 배경 같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당 언어 문화권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인문학적 사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정**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인간, 인간의 근원 문제,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상황을 목도했을 때 자신의 사고가 전적으로 맞다 또는 그르다는 판단을 성급히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에 대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감정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어디에서 오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끊임없이 사유하는 식이죠. 생각한 것을 꾸준히 글로 남기거나, 여럿이 함께하는 공부 모임이나 독서 모임, 학회 활동을 하는 것도 인문학도로 거듭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일대근** 우리가 인문학 이야기를 하지만 인문학이라는 이름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현 학생과 김용정 연구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인문학적 사고를 하며 삽니다.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내 삶은 왜 이런가' 같은 질문이 다 인문학적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니체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웹툰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지점에서 시작해도 누구나 인문학이라는 길의 일부분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인문학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보다 자신이 지금 관심 갖고 좋아하는 지점에서 출발하기 바랍니다.

인문학, 쉬운 단계부터 접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게 책일 수 있고,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 있고, 여럿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일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이 누구인지,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지현 철학과 16



전략지역전문가 아너스 프로그램 참가기

## 아너스 프로그램, 꿈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다

변정호 체코·슬로바키아어과 14

전략지역전문가 아너스 프로그램은 HUFS의 대표 글로벌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년 동안 아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체코에서 어학연수와 인턴십을 경험한 변정호 학생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 시간’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그의 모습이 인상 깊다.

### 두려움은 잠시, 체코에 적응하기까지

2018년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아너스-어학연수+인턴십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돼 1년 동안 체코에서 생활하고 올 초 한국에 돌아왔다. 첫 학기에는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 위치한 카렐대학교 부속 어학당인 우움 어학당에서 어학연수를 했다. 두 번째 학기에는 프리덱 미스텍에 있는 현대 트랜시스(前 현대 다이모스)에서 인턴십을 경험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인생 전체에 있어 꽤 가치 있는 1년이었고,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할 수 있다.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1주일 이상의 시간 동안 외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순간도 있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밤에 도착해 외국인인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인터넷 상으로만 확인했던 플랫폼에 가던 길은 정말 막막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을 없애는 데는 하루 정도면 충분했다. 시차 적응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무심코 틀었던 현지 TV 뉴스에서 출국 전 학교에서 배우던 단어가 몇 차례 들렸고, 다음날 아침 빵집에서 빵을 사면서 종업원과 가벼운 농담을 나눴고, 집 앞 공원을 산책하며 그림으로만 보던 프라하성을 실제로 보는 것과 같은 일상 속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체코에 스며들었다.





### 배움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우음 어학당

체코에서 1주일 동안의 적응 기간을 마친 뒤 우음 어학당에 다녔다. 우음 어학당은 평소 체코인과 직접 대화하고 싶었던 나에게 너무나도 큰 기회의 장이었다. 학교가 재미있다고 느낀 것은 인생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다. 10년이 넘도록 책상에 앉아 일방적 수업을 듣는 것에 싫증이 나 있던 나에게 여러 활동이나 상황극 등을 통해 언어를 쉽고 빠르게 가르쳐주는 수업 방식은 제격이었다. 게다가 운 좋게도 나의 담당 교수는 예전에 한국외대에서 체코슬로바키아어과 교수로 계셨던 분이였다. 교수님은 한국 학생이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발음이나 회화 상의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 덕분에 나의 어학 능력이 많이 발전할 수 있었다.

어학당 수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됐다. 방과 후에 어떤 것을 하면서 시간을 활용할까 고민하다 '이왕 언어를 배우러 왔으니 확실하게 언어를 배우자'는 각오로 체코 현지 레스토랑에서 server로 4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다. 체코어는 배우고 싶지만 낮을 많이 가리는 성격 때문에 '면접을 보러 오라'는 레스토랑 매니저의 이메일을 받고도 오랫동안 갈지, 말지 갈등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면접을 보러 갔던 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재산을 남겨주었다. 처음으로 외국인 동료와 호흡을 맞추며 일하고 농담을 나누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진부한 체코인의 문화가 아닌 그들의 진짜(?)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적응을 하던 시간은 그 뒤에 이어진 인턴십 과정에서도 아주 큰 백그라운드로 작용했던 것 같다.

### 현대 트랜시스에서 경험한 6개월 인턴십

약 6개월 동안의 프라하 생활을 정리한 뒤, 체코 프리덱 미스텍에 위치한 현대 트랜시스에서 인턴십을 하게 됐다. 아너스 프로그램을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1학기에 공부하면서 쌓은 실력을 2학기 때 실무에서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비록 회사에서는 체코어보다 영어를 사용할 일이 더 많았지만, 언어 이외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아너스 프로그램은 굉장히 적합했던 것 같다.

솔직히 평소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계열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다. 회사에서 인턴인 나에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좀더 실무적이고 의미 있는 업무를 부여했고, 그 덕분에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또한 그로 인해 자동차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자발적으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있는 한국 주재원과 현지 채용 직원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됐음을 두말할 나위 없다. 그들은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을 많이 해줬고, 업무를 마치고 남는 시간에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줬으며, 퇴근 뒤 현지에서 있는 여러 한국 사람과의 자리를 마련해줬다.



### 지난 1년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

혹시, 지금 이 순간 아너스 프로그램을 신청할지 말지 고민하는 후배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신청하라고 말하고 싶다. 아너스 프로그램은 자신이 전공하는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점, 한국의 기업 문화 및 사회 생활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점, 주변의 많은 국가를 여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추억 등 장점이 가득하다. 취업 걱정으로 힘든 4학년으로서 되돌아볼 때 지난 1년은 앞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했다.



## 명불허전, 우리 프로

외대통역협회(USIA) 회장  
박영곤 스칸디나비아어과 14

###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생 통역 단체

‘외대통역협회(University Students Interpreters’ Association, USIA)’는 1980년 발족한 통역 단체로,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학생으로 이뤄진 학생 자치 기구다. 국내 대학생 통역 단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다. 외대통역협회 47대 회장인 스칸디나비아어과 14학번 박영곤 학생은 “통번역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협회 특성상 협회 자체적으로 큰 행사를 열어 진행하지는 않고, 대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의뢰에 협회원을 보내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외대통역협회는 긴 연혁만큼 굵직굵직한 통번역 활동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협회에는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통번역 의뢰가 자주 들어온다. 실제로 월트디즈니코리아, CJ제일제당, 서울지방경찰청, KBS, SBS,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통번역 의뢰가 들어와 업무를 수행했다. 외대통역협회 협회원이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통번역 의뢰를 맡아 수행한다. 돈이 오가는 만큼 좀더 전문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협회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여느 동아리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통번역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협회원 선발 시 외국어 실력을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선발할 때는 세 차례에 걸친 외국어 및 한국어 시험을 치르며, 선발된 뒤에는 6주 동안의 스터디 기간을 갖죠. 스터디 기간이 끝나면 의전 교육을 실시해 통번역 의뢰를 수행할 때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와 기본 수칙을 안내합니다. 통번역 업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통번역 업무 수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교육합니다.”

뿐만 아니라 협회원이 통역 수행의 기본 복장인 정장에 익숙할 수 있게 한다. 대학생 대부분은 평상시 정장을 자주 입지 않기 때문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상·하반기 정기 총회 때 정장을 입고 행사를 진행한다. 이런 행사를 통해 협회원은 정장을 올바르게 입을 방법,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태도 등을 배울 수 있다. 한편, 모든 통번역 업무는 회원의 실력을 고려해 배정된다. 신입 회원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를 맡고, 이를 통해 통번역에 익숙해지고 경력이 쌓이면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맡는 식이다.

# I am

외대통역협회는 통번역 업무 외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 기여 활동이나 외국어 과외 활동이 그것이다.

“현재 월드마스터위원회와 MOU를 맺어 주한 외국대사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행사에 통역 지원을 하고, 나눔과기쁨이라는 단체를 통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과서 번역을 합니다. 외국어 과외는 기존 협회 선배들이 연결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락이 오면 활동하고 있는 회원에게 개별 연락을 하거나 공지를 띄워 연결해줍니다.”

그 외에 재능기부 형태의 봉사활동 등은 아직 특별히 예정된 것이 없다. 하지만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연락해 봉사활동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올 하반기 언제라도 새로운 봉사활동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 박영곤 회장은 요즘 신입 회원이 협회에 더 애정을 갖고 오랜 기간 활동할 수 있게 하려 애쓰고 있다.

“제가 처음 외대통역협회 신입 회원으로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율이 있었 습니다. 모든 협회원이 협회에 애정을 갖고 결속해 오랫동안 활동을 이어 나가려면 이런 부조리를 없애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서 많은 부분을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협회가 정부와 외부 기업 및 단체의 통번역 의뢰를 수행하고 그 에 대한 대금을 받는 만큼, 전문적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율은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양한 활동 펼치는 외대통역협회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생 통역 단체인 외대통역협회.**

**1980년 발족해 40여 년 가까이 전문적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단순한 동아리를 뛰어넘어 프로 통역 단체로 인정받는 외대통역협회를 만났다.**

# HUJES

박영곤 회장은 외대통역협회의 가장 큰 매력으로 다양한 경험 과 이력을 쌓을 수 있는 점을 꼽는다. 협회원이 아니고서는 대 학생으로서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임이 분명해 보인다.

“기업 통역과 해외 출장 통역뿐만 아니라 인턴까지, 외대통역 협회에서 수행하는 통번역 범주는 무척 다양합니다. 통역을 나 가다 보면 ‘내가 이런 분 옆에서 통역을 한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게다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실제로 외대통역협회 협회원으로 통번역을 하다 적성에 맞아

통역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도 있고, 통역을 나갔다 해당 분야에 관심이 생겨 그 분야로 취업한 경우도 있다. 외대통역협회가 단순한 동아리 그 이상임을 실감하는 대목이다. 박영곤 회장은 지금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에 나설 준비를 한다.

“외대통역협회 협회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다양한 기업에 사전 통의를 얻은 뒤 협회 소개 서를 배포하려 합니다. 또한 한국외대 학생지원팀을 통해 우리 학교와도 협업해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 두 가 지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목표 입니다. 학생지원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다른 부서와의 협업 역시 기대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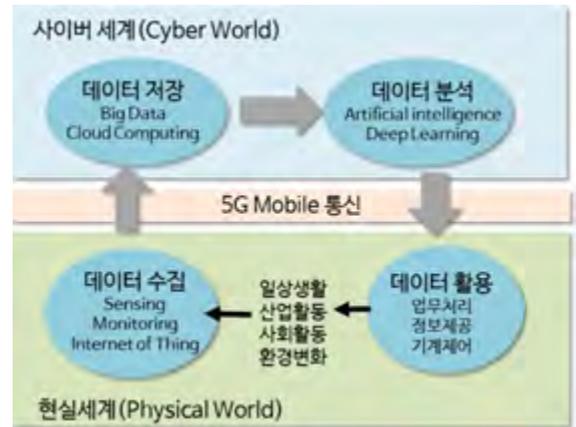
단순한 동아리를 뛰어넘다

## 5G 이동통신과 초연결 지능사회



**김희동**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정보화 사회를 견인하는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과 반도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능정보 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4차 산업혁명을 간단히 설명해 보면, 현실 세계(Physical world)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를 수집하여 사이버 세계(Cyber world)에 있는 Cloud 서버에 저장하여 빅데이터(Big Data)로 축적하고, 이들 데이터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로 분석, 처리하여 현실 세계에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를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CPS)이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ICT 기술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및 5G 이동(Mobile)통신 시스템의 머릿글자를 사용하여 ICBM이라 하며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 혹은 보안 기술을 추가하기도 한다.



〈그림〉 4차 산업혁명과 5세대 이동통신

이 글에서는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를 연결하는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설치된 2G 디지털 이동통신은 2000년대 3G IMT-2000을 거쳐 2010년대에는 4G IMT-Advanced, 그리고 2020년 5G IMT-2020으로 한 세대 수명 10년마다 진화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CDMA 방식 디지털 이동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3G망, 4G망 구축도 세계 최초의 국가이다. 또 2019년 4월 3일 밤에 5G 첫 가입자를 수용하여 세계 최초 5G 서비스 제공 국가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설치 국가가 되려는 것은 차세대 시장과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5G 시대의 사회 구조는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4G LTE-A(Long Term Evolution Advanced)까지 진화 과정을 되짚어 보자. 3G보다 빠른 무선 데이터 속도인 100Mbps 고속 4G 이동통신망은 인터넷 기술만으로 음성과 데이터 융합 서비스를 실현하였다. 개인의 일상 생활들을 스마트폰에서 처리하면서 소위 ‘모바일화’가 구현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 출현하면서 ‘소셜화’가 진행되었다. Airbnb, Uber택시 등 공유 경제 사업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Airbnb는 숙박업계를, Uber는 택시업계를 대체하는 예와 같이, 이들 신생 사업들은 기존 사업들을 위협하거나 퇴출시키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주도하여 발전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 질서가 네트워크화, 플랫폼화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 질서로 변형되고 있다. 모바일 혹은 소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네트워크의 파급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개체간의 간격은 줄어들기에 네트워크는 계속 확장될 것이다.

5G 이동통신은 현재 사용 중인 4G 이동통신과 무엇이 다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4G 이동통신까지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검색과 동영상 정보를 끊어짐없이 볼 수 있는 고속통신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5G 이동통신은 전송 속도를 더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CPS를 위한 기반 구조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G는 4G와 차별되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최대 전송 속도가 4G LTE-A에서는 1Gbps인데 비해, 5G IMT-2020은 20Gbps이다. 둘째, 5G는 주변 상황을 감지, 감시하는 IoT 단말기가 발생하는 느린 속도의 데이터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고, 다량의(massive) IoT 단말기가 동시에 연결 가능하다. 셋째, 5G는 자율주행 자동차들도 연결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을 1 msec 이하로 낮추면서, 또한 고장 없는 고신뢰도(High-reliability)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5G 이동통신은 사람 외에도 기계(사물)들을 연결하기 위한 IoE(Internet of Everything)을 위한 것이다. 5G에 연결될 기계들은 간단한 IoT 센서, 컴퓨팅서버,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지능 수준을 가질 것이다. 기계에 지능을 넣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2012년 심층학습 기술이 개발된 이래 화상 인식, 음성 인식, 기계 번역, 대화 생성 시스템 등의 자연어 처리 분야에 적용되어 인간과 기계의 인터페이스(Interface)가 한층 간편하고 정확해지고 있다. 또한 알파고 이후에 유명해진 강화학습(Reinforced Learning) 기술은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적용되면서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기계들과 인간이 5G 이동통신망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인간과 기계가 상호 공존하는 초연결 지능사회로 진화될 것이다.

5G 이동통신망은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기반 구조로서 인간과 기계가 네트워크상에서 공존하면서 네트워크의 효율성, 경제성 효과가 증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들은 지역에 설치한 CCTV를 5G망으로 연결하여 영상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분석하여 교통 흐름 제어, 범죄 없는 안전한 스마트 도시 구축 등에 이용할 수 있다. 4G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5G 시대에도 기존 산업 생태계는 창조적 파괴에 의해서 새로운 산업 구조로 변환되는 진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겪을 것이다. 우선 5G 통신망을 운영하는 통신 사업자도 디지털 비트를 전달하는 기존의 통신 사업 범위에서 벗어나, 의료, 금융, 건설, 에너지, 교통, 유통 등 다른 산업계와 협업하여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설치된 5G 상용망이 테스트베드가 되어 신규 서비스, 신규 사업이 발굴되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익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대학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학문간 소통하는 연결 네트워크를 만들고 네트워크 기반 위에서 대학의 새로운 미래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기존의 학문 체계가 파괴되고, 새로운 학문 체계가 개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종류의 단말이 연결되는 5G 이동통신망의 상용화를 바라보면서, 우리 대학의 밝고 활기찬 미래를 위한 창조적 전략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 H



# F

# U

# HUFS NEWS

[HUFS Topics](#)

[HUFS Today](#)

[HUFS Academies](#)

[HUFS Professors](#)

[HUFS Institutes](#)

[CUFS News](#)

[HUFS Books](#)



# S

# QS 세계대학평가 국내 종합대학 8위



우리 대학이 지난 6월 19일(수) 발표된 '2019~2020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종합대학 8위를 차지했다. 우리 대학은 전 세계 94개국 1,210개 대학 중 세계 407위에 랭크됐으며, 국내 순위로는 3년 연속 전체 대학 11위(카이스트, 포스텍, 광주과학기술원 포함), 종합대학 기준 8위를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 교수 비율 지표에서는 종합대학 기준으로 7년 연속 국내 1위를 유지하는 등 국제화 및 교육 여건 전 부문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번 QS 세계대학평가 순위는 우리 대학이 그동안 연구 성과의 질적 제고와 교육 선진화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

## 장인탁(스페인어 76) 강의실 헌정식



우리 대학 교수학습개발원 202호에서 지난 6월 4일(화) 오전 11시 30분 장인탁(스페인어 76, J&J회장) 강의실 헌정식이 거행됐다. 1억 원의 학교 발전기금 및 장학금을 기부한 장인탁 회장의 학교 사랑에 감사하며 강의실을 헌정한 것이다. 헌정식을 위해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먼 길을 날아온 장인탁 회장 내외는 스페인어과 재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장인탁 회장은 1983년 우리 대학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이후 도미니카공화국으로 건너가 현 도미니카 대표 한인기업 J&J를 설립했다. 중남미 한류의 주역으로 꼽히는 J&J는 한국 김, 한국 조미료 등 각종 한국 식음료 제품을 수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자체 라면 브랜드인 '초이스'를 런칭해 뜨거운 음식을 먹는 문화가 없던 도미니카에 한국의 '라면' 문화를 전파한 혁신 기업으로 널리 알려졌다.

# 중남미연구소, 2019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 착수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소장 정경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HK+(인문한국플러스) 사업에 선정됐다. 전국 34개 대학 연구소가 참여해 경합을 벌인 결과 5월 9일 (목) '2019년 인문한국플러스(HK+ 1유형)'에 최종 선정됐고 현재 사업에 착수했다. 중남미연구소는 연간 12억 5,000만원씩 최대 7년 동안 지원받는 연구비 87억 5,000만원과 학교의 대응 투자금 3억을 포함한 총 90억 5,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남미연구소는 '21세기 문명전환의 플랫폼, 라틴아메리카: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이라는 아젠다 아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융합해 중남미의 자연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이를 한국에 대응시킬 계획이다.

## 개교 65주년 기념식 개최



지난 4월 19일(금)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동대문구 이문동) 애경홀에서 '개교 6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은 전종섭 교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인철 총장과 김종철 이사장, 민동석 총동문회장, 각 처장단, 교직원 및 학생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이사 부회장과 최종현 전 네덜란드 대사가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HUFS Awards를 수상했다. 또한 김용애 화학과 교수가 동원교육상을 수상했다. 동원교육상은 우리 대학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소속 교원에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높이고 대학 교육과 연구 수준을 제고하고자 수상하는 상이다.



### 신입생 농구대회, 2019 새내기 3X3 농구대회

지난 3월 15일(금)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교내 중앙 동아리 농구부 HUFS 주최로 '2019 새내기 3X3 농구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농구에 열정을 갖고 있는 서울캠퍼스 14개 학과 신입생이 참가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줬다. 중국외교통상학과와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가 결승전을 치른 결과 최종 우승의 영예는 중국외교통상학과가 누렸으며, 대회 MVP는 중국외교통상학과 19학번 유정민 학생이 선정됐다. 농구부 이동엽 학생은 "2019학년도 새학기를 맞아 열린 신입생 농구대회에 많은 신입생 학우가 참여해 기쁘고, 앞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많은 운동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HUFS 미디어센터 개소식

지난 3월 18일(월) 우리 대학 대학본부 223-2호에서 'HUFS 미디어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전략홍보팀 박창호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소식은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HUFS 미디어센터를 둘러보는 것으로 이어졌다. HUFS 미디어센터는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해 서비스할 수 있는 통합형 미디어 센터로, HUFS 미디어센터 안 스튜디오를 통해 고품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인철 총장, 서울캠퍼스 윤석만 부총장, 김학태 재무·대외 부총장, 글로벌캠퍼스 조기성 부총장, 나송주 홍보실장, 각 처장단, 한국외대 온/오프라인 홍보대사인 HUFSon과 새로미 대표단, 홍보실 직원이 참석했다.



### 2019-1학기 외대사랑순찰대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

지난 3월 18일(월)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실에서 교내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외대사랑순찰대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 외대사랑순찰대는 매주 화·목요일 저녁 7~11시까지 서울캠퍼스 안전을 위해 순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봉철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안전하게 교내를 순찰할 수 있게 학교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장 한현섭 경정은 "별도의 활동 장학금 없이 순수 자원봉사로서 순찰대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감명받았다. 동대문경찰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순찰대원들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2019학년도 제38회 HUFS 월드컵

우리 대학 중앙 동아리 외대 축구부 주최로 2019학년도 '제38회 HUFS 월드컵'이 열렸다. 이번 제38회 HUFS 월드컵은 서울캠퍼스 31개 학과(팀)가 참가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승부를 겨루는 대회로, 지난 3월 25일(월)부터 4월 5일(금)까지 2주 동안 학생들의 열띤 응원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져 눈길을 끌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제38회 HUFS 월드컵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최종 우승팀의 영예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독일어과에 돌아가 화제를 모았다.



###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우수 이용자 다독상 시상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 도서관(관장 김상범 교수, 사학과)은 지난 3월 28일(목) 글로벌캠퍼스 도서관에서 다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기에는 권문경(GBT전공 17) 학생이 최다 대출자로 우수상을 받았고, 장려상은 이다선(철학과 15), 이주형(철학과 12), 백승석(사학과 17), 이유정(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16), 송수민(인도학과 18), 황인규(컴퓨터공학과 12) 학생이 수상했다. 김상범 도서관장은 “책을 많이 읽고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이 살아 있다고 느껴진다. 젊어서부터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수상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 핸드볼부, 제34회 서울특별시합회장기 중별 핸드볼 선수권대회 우승

우리 대학 중앙 동아리 핸드볼부는 지난 4월 7일(일) 제34회 서울특별시합회장기 중별 핸드볼 선수권대회에 참가해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서울특별시핸드볼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우리 대학을 포함해 서울대, 상명대, 홍익대, 서울교대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생활체육대학부에 참가한 우리 대학 핸드볼부는 80년대에 우승을 한 뒤 약 40년 만에 서울대를 꺾고 우승했다. 아울러 대회 최우수 선수로 경영학과 고란쉬 펠릭스가 선정돼 더욱 주목받았다. 핸드볼부는 학교의 지원 및 격려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훈련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터키문화원), 2019년 시무식 개최

지난 4월 12일(금)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에서 서울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터키문화원)의 시무식 및 저녁 만찬이 개최됐다.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는 터키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원으로 2009년 터키 정부에 의해 설립됐다. 전 세계 48개국에 58여 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자국어 보급과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3월 1일(금) 개설됐고, 한국과 터키의 긴밀한 문화 발전을 위한 신호탄으로 주목받았다. 시무식에서 오종진 원장(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학과장)은 “한국에 공식 터키 문화원이 개설된 것을 축하하고, 진정한 형제 관계 증진을 위해 터키와 한국 사이의 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태국 실라빠견대학교, 서울캠퍼스 사회봉사센터 방문

지난 4월 26일(금)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사회봉사센터에 Kanit Kheovichai 부총장이 이끄는 태국 실라빠견대학교 교육대학원 대표단이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태국 실라빠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박사생들에게 사회 봉사센터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Kanit Kheovichai 부총장은 “한국외대와 실라빠견대학교는 20년 이상의 깊은 유대 관계를 지속해왔다. 이번 방문은 한국외대 사회봉사센터가 가진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은 “한국외대 사회봉사센터는 글로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국내외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경영공학과 재학생,

#### INFORMS 2019 Analytics & O.R Student Team Competition 3등상

우리 대학 산업경영공학과 조진영, 이유경, 강문정 학생이 지난 4월 미국 오스틴에서 개최된 INFORMS 2019 Analytics & O.R Student Team Competition에서 'A combined approach of reinforcement learning and mathematical programming for a real-world outbound supply chain optimization'을 주제로 발표해 3등상을 수상했다. INFORMS는 세계 최대의 경영과학 학회다. 올해 전 세계 25개국 292팀이 참가한 가운데 6개 팀이 최종 본선에 올랐고, 산업경영공학과 팀이 최종 6개 팀에 선정됐다. 다른 수상팀이 대부분 대학원생으로 이뤄진데 반해 우리 학교 참가팀은 모두 학부생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 농구부, 2019 HUFS 농구대잔치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지난 5월 14일(화)~17일(금) 교내 중앙 동아리 농구부 HUFS(주장 박경재) 주최로 '2019 HUFS 농구대잔치'가 열렸다. 2017년부터 해마다 실내 오바마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서울캠퍼스 단과 대학 및 학부 농구 소모임, 교직원 등 16개 팀이 참가했다. 5월 14일(화) 오후 5시 독일어과와 LD학부의 개막전에 앞서 윤석만 서울캠퍼스 부총장의 격려사 및 시투가 있었으며, 시투에 앞서 윤석만 부총장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운동 경기를 통해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있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연대감을 느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 입학처, 올인원 수시설명회 '너의 합격이 보여'

우리 대학 입학처는 지난 5월 11일(토) 전국 권역별 올인원 수시설명회 '너의 합격이 보여'를 대전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국 권역별 올인원 수시설명회는 2020학년도 전형 안내 뒤 모의 논술, 학부모 브런치톡(1:1 상담)을 함께 진행해 수험생 개별 특성에 맞는 지원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줬다. 대전 지역의 경우 26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시간 동안 2020학년도 한국외대 전형과 전년도 입시 결과를 설명한 뒤 모의논술과 학부모 브런치톡(1:1 상담)이 동시에 이뤄졌다.



### 글로벌캠퍼스 학생상담센터, 열린 상담실 실시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 학생상담센터는 지난 5월 15일(수)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상담실을 개최해 학생 201명의 참여를 이끌었다. 이번 열린 상담실은 학생들에게 '자가진단 심리검사지'를 나눠준 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자가진단 심리검사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진로 탐색으로 이뤄져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더불어 학생상담센터 소개 및 프로그램 홍보지와 자살 위기 대응 가이드도 함께 배부했다. 글로벌캠퍼스 학생상담센터의 열린 상담실은 직접 현장으로 나가 적극적으로 이벤트를 홍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 조정부, 제45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 참가

우리 대학 조정부(은파회)는 6월 1일(토)~6월 2일(일) 부산 서낙동강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45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 대학을 포함해 6개 국내 대학팀 120여 명이 출전했으며, 우리대학은 남자 대학부 콕스포어 500m, 남자 대학부 에이트 800m, 여자 대학부 콕스포어 500m, 남자 대학부 개인 500m 실내종목에 참가했다. 이 중 남자 대학부 개인 500m 실내종목에서 1위 및 2위를 차지했다. 우리 대학 조정부는 1961년 3월에 만들어져 올해 59년 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규모조정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 2019 퀸쿠아트리아 축제

제53대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5월 22일(수)~24일(금) '2019 퀸쿠아트리아 축제'가 열렸다. 5월 22일(수)에는 축제 전야제 행사로 외대문예한마당, 월드뮤직페스티벌, 영화제가 진행됐다. 또한 도서관 간담회 및 총장과의 대화가 진행되기 전, 김인철 총장과 김봉철 학생·인재개발처장 등이 직접 학생들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나눠 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5월 23일(목)에는 버스킹, 미스터외대, 가요제, 인기 가수 사이의 공연, 5월 24일(금)에는 다양한 아티스트의 공연과 DJ 파티가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학업에 지친 재학생에게 활력소가 돼 남은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기 충분했다.



### LD학부, 외교통상연구센터와 학술 세미나

LD학부와 외교통상연구센터의 공동 주관 학술 세미나가 지난 4월 10일(수) 우리 대학 대학원 브릭스문화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 세미나의 주제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강연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자 현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인 배정호 박사가 맡아서 진행했다. 배정호 박사는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하고, 이 전략의 구상 목적과 국제 전략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이런 일본의 외교 전략이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국제 정치적으로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일본이 현재 같은 국제안보적 상황 아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어떻게 추진하고 운영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했다.



### 홍보실, 2019학년도 학생홍보대사 임명장 수여식

우리 대학 홍보실은 지난 5월 28일(화) 서울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2019학년도 학생 홍보대사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2019학년도 학생 홍보대사는 새로미 15명, 흡스온(HUFSon) 20명 모두 35명이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새로미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퍼스 투어 및 교내의 학교 행사의 의전을 담당하며, 흡스온은 학교 공식 SNS를 운영, 관리하며 학교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과 영상 제작을 담당한다. 흡스온 기획제작팀에 임명된 오지운(미디어커뮤니케이션 15학번) 학생은 "한국외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 최근 홍보 트렌드인 SNS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스페인어과,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초청 콜로키움

우리 대학 스페인어과는 지난 4월 29일(월)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로돌포 솔라노 키로스 코스타리카 대사의 강연을 개최했다. 아울러 세르반테스와 공동 주관한 이번 콜로키움은 '발전 위한 문화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코스타리카 대사는 강연을 통해 코스타리카에 대한 개괄적 정보와 코스타리카가 추구하는 가치 및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전했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2021년 독립 200주년을 맞이해 향후 200년에 대한 대계를 세우고 있으며, 이 모든 계획의 바탕에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했고, 다양한 분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 윤일동·황성우 교수,

**제48회 전국교수테니스대회 남자 장년부B 부문 우승**  
우리 대학 윤일동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 교수와 황성우 러시아연구소 교수 조가 전국적으로 1,600여 명이 참가한 '제48회 전국교수테니스대회' 개인전 남자 장년부B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지난해 박진경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교수와 김은경 아프리카연구소 교수 조가 여자부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것에 이어 올해 남자부에서도 처음으로 우승함으로써 대학 사회에서 우리 대학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일조한 것이라 수상의 의미가 더욱 크다.



### 영어통번역학부,

#### 맨 부커상 수상자 데보라 스미쓰와의 대담

지난 5월 1일(수)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 어문관 206호에서 맨 부커상 수상자인 데보라 스미쓰(Deborah Smith) 강연이 개최됐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해 2016 맨 부커상을 받은 데보라 스미쓰는 한국 문학을 널리 세계에 알려 번역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특강은 '영미문학과 번역' 전공 주임 윤선경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이후 사회자의 질문과 데보라 스미쓰가 대답하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연장에는 180여 명이 넘는 교강사 및 석박사 과정생, 통번역대학 학부생 및 번역에 관심 있는 다양한 전공 학생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국제지역대학원 유럽연합학과 및 IT학부, 2019 유럽의 날 행사 참여

우리 대학 국제지역대학원 유럽연합학과 대학원생 및 IT학부생은 지난 5월 9일(목) 장모네EU센터 김시홍 소장과 IT학부 강유덕 학부장과 함께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19 유럽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유럽의 날은 유럽연합의 교육 지원 사업인 장모네 프로그램 30주년 기념을 겸해 고려대학교와 주한 EU 대표부 및 국내 장모네 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Bringing Jean Monnet Back: Past, Present and Future'을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장모네의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아시아의 적용 가능성을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 스페인어과, 주한 스페인어권 대사 초청 콜로키움

우리 대학 스페인어과는 지난 5월 14일(화) 미네르바 국제회의실에서 주한 스페인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 대사를 초청해 스페인의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외교, 문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2020년은 양국 수교 70주년으로 스페인의 고위급 인사와 한국에 오고,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전시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라 양국의 정치, 경제, 외교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 자리에는 스페인 대사관의 까를로스 까딸란 문화 담당관과 우리 대학 김인철 총장, 윤석만 부총장, 나승주 홍보실장, 김경희 학과장이 함께했다.



### 브뤼셀자유대학교 MOU 체결

우리 대학은 지난 3월 27일(수)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브뤼셀자유대학교와 연구 협력, 학생 교류, 교직원 교류 등에 관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 행사는 벨기에 국왕 국민 방한(3월 24일~28일) 일정 중 하나로 진행됐으며, 체결식에는 벨기에 국왕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우리 대학에서는 김인철 총장과 오종진 국제교류처장,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진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우리 대학, 특히 LD학부 및 국제지역대학원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브뤼셀자유대학교와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 글로벌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 진로취업지원센터는 지난 4월 3일(수) 경기도일자리재단 중회의실에서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 브리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은 7월부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전공과정 실습비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공과정 수료 뒤에는 기업에서 직접 현장실습을 제공받으며, 현장실습비 최대 1천만원과 4대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우리 대학이 지원받게 될 지원금 규모는 4년 동안 약 15억2천만원 규모다.



### 중국 공자학원 본부 간 시범공자학원 설립 협정 체결

지난 4월 10일(수) 중국 북경에 위치한 공자학원 본부(국가한판)에서 김인철 총장과 중국 측 마진비 부주임이 우리 대학 공자학원의 시범공자학원 설립 협정을 체결했다. 공자학원 본부에서는 시범공자학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확언했으며, 공자학원 협력 학교인 북경외국어대학교의 팡롱 총장 외 다수의 관계자가 한국 측 일행을 맞아 축하하며 앞으로 공자학원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앞으로 우리 대학 공자학원은 시범공자학원으로서 중국어 교육뿐 아니라 학술 연구, 문화 교류 방면으로 더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 아랍어과, 샤르자 아랍어학술원 협력각서 체결

우리 대학 아랍어과는 지난 5월 1일(수) 서울캠퍼스에서 샤르자 아랍어학술원과 외국인인을 위한 아랍어 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 상호 협력을 목표로 하는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위해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아랍어학술원 원장 Dr. Mhamed Safi al-Mustaghanimi와 샤르자 대학교 인문대 학장 Dr. Abdul Sahib Mehdi Ali, 아랍어 학술원 국제협력처장 Mr. Majid al-Houli가 방문했다. 샤르자 아랍어학술원 원장 일행은 조인식 이후 우리 대학 아랍어과와 통번역대학원 한아과 학생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아랍어 학습과 교육'에 관한 주제로 특강을 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인도연구소

#### 주한인도상공회의소와 MOU 체결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 HK+사업단(단장 김찬완)은 주한인도상공회의소(회장 와수데브 톰베)와 지난 4월 17일(수) 일반대학원 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학술 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도의 경제 및 비즈니스 관련 이슈와 관련된 세미나와 특강을 공동으로 기획·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주한인도상공회의소는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게 우리 대학 인도학 분야 학생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김찬완 단장은 “인도연구소가 인문한국플러스(HK+)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 연구소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업무협약이 지닌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 명사 초청 특강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 HK+사업단(단장 김찬완)은 지난 5월 3일(금) 본관 330호에서 미네소타대학의 프레데릭 애셔와 캐서린 애셔 명예교수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인도학과 미술사 분야 권위자인 두 교수는 각각 ‘지역학: 그 역사와 논쟁’과 ‘인도와 세계, 타즈마할을 상상하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뒤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레데릭 애셔 교수는 미국인도학연구소와 국립미술사위원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캐서린 애셔 교수는 국제대



학예술협회 회장과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한 인도 이슬람 미술 전문가다.

#### 인도경영대학원 친메이 톰베 교수 초청 특강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 HK+사업단(단장 김찬완)은 지난 5월 9일(목) 국제관 113호에서 인도경영대학원의 친메이 톰베 교수를 초청해 명사 특강을 개최했다. 톰베 교수는 ‘India Moving: Migration Matters’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뒤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톰베 교수는 인도 재무부 등에서 자문을 했으며, 노동경제학과 경제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신진 학자다. 또한 인도 노동 인구의 국내외 이동을 연구했으며, 지난해 저서 『India Moving: A History of Migration』를 발간했다.



#### 지역인문학센터, ‘간디, 세상을 바꾸다’ 특강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 HK+사업단(단장 김찬완) 지역인문학센터(간디아슈룸)는 지난 3월 29일(금) ‘간디, 세상을 바꾸다’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간디 탄생 150주년을 기념한 ‘간디, 세상을 바꾸다’ 특강 시리즈 중 첫 번째 강의로, 일반인과 대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강사를 맡은 인도연구소 김찬완 소장은 간디의 일생을 중심으로 비폭력 무저항의 정신, 인도 자치와 자립의 상징 간디, 정치인으로서의 간



디가 네루의 삶에 미쳤던 영향 등을 통해 인도 통합의 상징인 간디를 소개했다. 전국 대학과 기관에서 매월 1회씩 진행되는 ‘간디, 세상을 바꾸다’ 특강 시리즈의 두 번째 강의는 4월 26일(금) 동국대에서, 세 번째 강의는 5월 23일(목) 전남대에서 개최됐다.

#### 제13회 콜로키움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 HK+사업단(단장 김찬완)은 지난 4월 12일(금) 국제관 101호 강의실에서 손연우 교수(부산외국어대 인도학부 인도언어문화학과)를 초청해 ‘문학가 라히 마숨 라자’를 주제로 제13회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손연우 교수는 라히 마숨 라자가 그의 문학 작품들 속에서 우따르쁘라데시 주 동부의 사회·정치적 상황 및 평범한 일반 대중의 삶과 생활, 기쁨과 슬픔, 사랑과 고통을 묘사했으며, 분단의 영향으로 힌두와 무슬림을 비롯한 서로 다른 사회 집단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생생하게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라히 마숨 라자의 개방적이고 진보적 종교관에 주목하고, 그의 문학적 바탕은 종교를 초월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역인문학센터, 「INDIA MOVING」 북콘서트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의 HK+사업단(단장 김찬완) 지역인문학센터(간디아슈룸)는 지난 5월 15일(수) 인문학 행사의 일환으로 친메이 톰베(Chinmay Tumbbe) 교수



의 「India Moving: A History of Migration」에 대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도연구소, 인도대사관, 주한인도문화원, ICCK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참여했다. 저자인 톰베 교수는 노동경제학과 경제사 분야의 신진학자로, 그의 2018년 저서 「India Moving: A History of Migration」은 인도 노동 인구의 국내외 이동을 연구한 것으로서 인도연구소 명사 초청 특강에서도 소개됐다.

### 역사문화연구소

#### HK+ 접경인문학 연구단, 저자와의 만남

우리 대학 역사문화연구소(소장 이근명) HK+ 접경인문학 연구단은 지난 3월 23일(토) 안산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3층 대강당에서 저자와의 만남 '미하일 박의 문학과 예술세계'를 개최했다. 미하일 박 작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 동포 작가이자 미술가, 번역가로, 이번 모임에서 '미하일 박의 문학과 예술세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저자와의 만남에 참석한 이들은 미하일 박의 문학과 예술 작품을 통해 파란만장했던 러시아 유민사를 살펴보고 아울러 고려인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지역인문학센터, 전남 영암군 역사 탐방

우리 대학 역사문화연구소(소장 이근명)의 HK+ 접경인문학 연구단 지역인문학센터(HK+ RCCJ 경기 지역인문학센터)는 지난 4월 5일(금) 전남 영암군 일대에서 역사탐방 '왕인을 통해 본 한·일 문화교류와 혼종성'을 개최했다. 이번 역사 탐방은 HK+ 접경인문학 연구단과 용인문화원이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가 후원해 행사로 용인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도갑사, 영암도기박물관, 구림 전통 마을, 왕인박사유적지, 영암 왕인문화축제 등을 직접 관람하

며 한·일 문화 교류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접경인물로서 왕인을 통해 교류와 혼종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 지역인문학센터, 교사 양성 특강

우리 대학 역사문화연구소(소장 이근명)의 HK+ 접경인문학 연구단 지역인문학센터(HK+ RCCJ 경기 지역인문학센터)는 지난 4월 19일(금) 서울캠퍼스에서 교사 양성 특강 '교과교재 활용 방법론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교사 양성 특강은 HK+ 접경인문학 연구단 지역인문학센터(HK+ RCCJ 경기 지역인문학센터)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가 후원한 특강으로 역사학과와 대학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대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특강을 통해 각 나이에 맞는 역사교육 방법, 대상자의 상태와 특징에 따른 교육의 다양성, 관심 분야에 따른 교육법 등 교육과 관련한 방법론을 배울 수 있었다.



#### 지역인문학센터, 고려인 대상 인문 답사

우리 대학 역사문화연구소(소장 이근명)의 HK+ 접경인문학 연구단 지역인문학센터(HK+ RCCJ 경기 지역인문학센터)는 지난 4월 20일(토)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고려인 대상 인문 답사 '한반도 역사 속의 접경을 가다: 중앙대·한국외대 HK+ <접경인문학> 연구단

과 함께 떠나는 역사 탐방-고려인과 함께 걷는 고대와 현재의 접경, 임진강'을 개최했다. 이번 고려인 대상 인문 답사는 HK+ 접경인문학 연구단 지역인문학센터(HK+ RCCJ 경기 지역인문학센터)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경기도 안산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인문 답사에서는 역사 속의 접경 지역이었던 임진강 유역 파주시 일대를 직접 답사함으로써 2년차 연구 주제 '잡거와 혼종'에 맞는 역사를 고려인들이 접할 수 있었다.



### 러시아연구소

#### 주한 러시아대사 초청 강연회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강덕수)는 지난 4월 5일(금) 서울캠퍼스 국제관 503호에서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청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러시아의 입장과 구상'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가 기울인 노력과 중재안을 설명하면서, 2018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등 한반도 긴장 완화 상황에 대해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특강 행사에는 안드레이 쿨릭 대사 부부와, 김인철 총장, 국내 러시아 전문가, 학부모 및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 등 100명이 넘는 청중이 참석했다.



### 제179차 콜로키움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강덕수)는 지난 4월 10일(수)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411호 러시아연구소 회의실에서 티타닌 브레그바제 조지아 국립외교원장을 초청해 '조지아의 유럽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브레그바제 원장은 한국 국제교류재단 해외 인사 초빙 사업의 일환으로 방한해 러시아연구소 및 우리 대학 그리스·불가리아어 과를 방문했다. 브레그바제 원장은 소련 해체 이후 국제 무대에 새로운 주권 국가로 등장한 조지아의 국가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조지아의 역사는 유럽 문명과 밀접히 연관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날 EU와 관계 개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장모네 EU센터

#### 유럽안보협력력 관련 세미나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는 유럽안보 위협력 관련 세미나를 개최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26일(화) 국제관 203호에서 주한 EU 대표부 정무 담당 공사참사관 조엘 이보네 박사를 초청해 '유럽안보 협력력'으로의 갈 'EDC에서 PESCO'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지역대학원 EU학과 학생들과 학부 EU 융합전공 학생들이 참여해 한국과 EU간 안보 협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 주한 라트비아대사관과 원탁회의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와 주한 라트비아대사관은 지난 4월 25일(목) 본관 203호에서 '유럽연합과 동아시아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 측 대표는 윤석만 부총장, 김시홍 소장, 김봉철 부소장, 강유덕 IT학부장, 메이슨 리치 국제대학원 교수,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이 참가했다. 유럽 측 대표는 아니스 마제익스 라트비아 외교부 정무차관보, 페테리스 바이바르스 주한 라트비아대사,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오타로 베르제니쉬빌리 주한조지아대사, 올레그스 일지스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 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 2019 모의유럽이사회 성황리 개최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홍)와 연세대, 고려대 EU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9 모의유럽연합'이 지난 5월 23일(목)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회의 의제는 'How can all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agree on one Migration Policy?'였다. 오전 세션에 유럽의회 의장(한국외대 강나경)의 기조연설 뒤 대표단 28명 전원은 회의를 진행했다. 오후 2시 본 회의가 재개됐고, 의제에 대한 결의안을 결정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폐회식 및 시상식에서는 윤석만 부총장과 Michael Reiterer 주한EU대사가 축하연설을 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안세연)이 유럽이사회 결의안과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 언어연구소

#### 언어연구소 콜로키움

우리 대학 언어연구소(소장 홍성훈)는 HK 세미오시스 연구 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년도 첫 '언어연구소 콜로키움'을 지난 4월 11일(목)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콜로키움에서는 우리 대학 이란어과 소속 박새라 교수가 '페르시아어의 언어유형론적 특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 대학 전·현직 교수와 학생, 연구원 등 많은 청중이 참석해 다소 생소한 페르시아어(이란어)의 통사적 특성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 국제지역대학원

#### 싱가포르 국제 학술대회 개최

우리 대학 국제지역대학원 글로벌연구네트워크(GRN)사업단(단장 온대원)과 국제지역연구센터는 지난 4월 22일(월)~23일(화) 싱가포르의 쉐 탱글린 호텔에서 호주 국립대학교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학원 및 싱가포르 난양공대 국제대학원(RSIS)과 공동으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3년째 수행하고 있는 '미국 주도 동맹의 연계: 아태지역 및 역외로의 확장'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우리나라와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에서 이 분야의 주요 학자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 HUFS Professors



### 전종근 GBT학부 교수, 한국소비문화학회 차기 회장 선출

전종근 GBT(Global Business & Technology) 학부 교수가 지난 3월 29일(금)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소비문화학회 2019춘계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0년 1월부터 2년간이다.



### 조준호 인도연구소 연구원 교수, 제2회 성운학술상(불교학술진흥상) 대상 수상

인도연구소 연구원 조준호 교수가 (사)한국불교학회가 수여하는 제2회 성운학술상(불교학술진흥상) 대상을 수상했다. 조준호 연구원의 '아미타불 신앙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규명' 논문은 '무량광불', '무량수불', '극락정토' 등 아미타신앙의 핵심 개념들이 초기 불교에서 기원하고 있음을 문헌적 전거를 통해 심층적으로 고찰했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아미타불 신앙의 기원이 힌두교나 페르시아 등 외부 영향에서 비롯됐다는 주류 견해와 달리 초기 불교로부터의 발전적 전개의 결과라는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안인경 통번역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수상

안인경 통번역대학원 한독과 교수가 지난 5월 14일(화) 새한일보와 NGO연대가 주최한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외교문화대상(통번역부문)'을 수상했다. 통번역을 통해 국제이해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통번역 국제학술지 '포럼(FORUM)', 세계적 학술 데이터베이스 스크opus(SCOPUS) 등재

통번역대학원 최정화 교수가 공동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번역 국제학술지 '포럼(FORUM)'이 5월 세계 최대의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인 '스콥퍼스(SCOPUS)'에 등재되었다.

'포럼(FORUM)'지는 한국통역번역학회와 프랑스 파리 3대학 통번역대학원이 공동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로, 2003년 유네스코 후원을 받아 세계 유일의 동서양 공동출판 국제학술지로 출발하였으며, 한국외대 최정화 교수와 파리 통번역대학원(ESIT) Marianne Lederer 명예교수가 공동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스콥퍼스 등재는 통번역학 분야의 국제학술지는 한국 최초는 물론 아시아 최초로 명실공히 통번역학 분야의 국제전문학술지의 반열에 올랐음을 입증한다.

한편 스크opus 심사위원회는 "명확한 초록, 높은 언어수준,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내용, 학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콘텐츠, 영어와 불어로 논문이 기술되고 초록이 번역이 되어 가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논문 내용이 명확한 목표와 정책에 부합하다"고 등재 이유를 밝혔다.



### 외국어연수평가원

#### 2019년 하반기 외국어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19년 상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2019.08.05~12.20
	방학특별과정	1월, 7월	2019.07.16~07.31
야간과정	10주 야간회화과정	2월, 4월, 8월, 10월	2019.08.05~10.10
	14주 주말과정	3월, 8월	2019.08.24~12.14
주말과정	FLEX 대비과정	3월, 9월	2019.09.21~12.28

외국어연수평가원은 기초부터 고급까지 실용 외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다양한 외국어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마인어, 아랍어 등으로, 언어별 적정 인원 모집 시 개강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말하기·쓰기·듣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단기간 실용 회화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10주 야간과정,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말에 진행되는 주말 특별과정, 여름과 겨울방학에 단기과정으로 진행되는 방학 특별과정, 공무원유학시험으로도 활용되는 국가공인 FLEX시험 대비과정 등이 있다.

문의 02-2173-2515, 2524, 2525 [홈페이지 http://fittc.hufs.ac.kr](http://fittc.hufs.ac.kr)

#### 기관/기업체 위탁 교육과정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연간 40개 이상의 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소속 임직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여학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위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설하며, 의뢰 기관의 교육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위탁 기관의 특성과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 교육과정으로 설계 및 제공된다.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화재에니카손사, 롯데인재개발원, 한화그룹, KEB하나은행, 현대중공업 등 많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공기업을 비롯해 국내 유수의 그룹과 기업체 등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과정 이수 후 교육 성과와 만족도 면에서 높은 평가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의 02-2173-2524 [홈페이지 http://fittc.hufs.ac.kr](http://fittc.hufs.ac.kr)

### 스페인어 자격시험 DELE

DELE는 스페인 정부의 이름인데 Instituto Cervantes가 수여하는 권위 있는 공인자격증으로 스페인어의 언어적 능력과 경쟁력을 증명한다. 한국외대는 Instituto Cervantes와 협정을 맺은 DELE 시험 시행 기관으로 매년 5, 7, 11월 3차례 DELE 자격 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을 통해 획득한 DELE 자격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문의 02-2173-2498 [홈페이지 http://dele.hufs.ac.kr](http://dele.hufs.ac.kr)

### 세르반테스 교실 스페인어 강좌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과 협력해 교내에 세르반테스 교실을 개설해 2015년 1월부터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어 일반어 학과정(입문, 초급, 중급, 고급), DELE 시험대비반(B1, B2, C1), 단기특강(DELE문법, DELE구술대비반, 축구스페인어, 여행스페인어) 등 모든 강좌는 전문 원어민 강사가 직접 진행한다. 지난해 9월부터는 평일 오전과 토요일에도 일반어학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홈페이지 http://seul.cervantes.es](http://seul.cervantes.e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ulaCervantesSeul](https://www.facebook.com/AulaCervantesSeul)

### 서울평생교육원

#### 통번역기초과정

서울평생교육원은 통번역센터와 협업해 '통번역기초과정'을 운영한다. 2014년 개설해 현재까지 350여 명이 수강한 통번역기초과정은 한국외대의 38년 통번역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며, 통번역 기초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외국어 구사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9개 언어에 대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연 2회 3, 9월에 개강한다. 통번역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http://edulife.hufs.ac.kr)

#### 통번역 단기특강

서울평생교육원은 학생 및 일반인의 통번역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통번역기초과정에 이은 통번역 단기특강을 준비했다. 통번역 단기특강은 5주 동안 통번역의 기초를 다져 좀더 수준 높은 외국어 학습에 필요한 기틀을 닦을 수 있는 단기과정으로 7월 중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http://edulife.hufs.ac.kr)

### FLEX센터

#### 2019년 FLEX 정기시험 일정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시험은 한국외대가 수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관리하는 전문 외국어능력시험이다.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며 현재 주요 7개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정기시험을 연 4회, 3개 영역(듣기·읽기, 쓰기, 말하기)으로 나눠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FLEX는 모든 평가 언어가 듣기·읽기 영역에서 국가공인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신뢰도와 변별력이 높은 시험으로 평가받는다.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1.29~02.08	03.03	03.22	04.05
2회	04.26~05.02	05.26	06.14	06.28
3회	08.01~08.07	09.01	09.20	10.04
4회	10.10~10.16	11.10	11.29	12.13

문의 02-2173-2532, 2529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http://flex.hufs.ac.kr)

#### 기관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 상시 시행

FLEX센터는 기업체, 정부, 공공기관, 학교, 학원, 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과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를 상시 시행한다. 이 시험은 기존 정형화된 시험과 달리 의뢰 기관에서 시험 내용, 시행 일정 등을 자유롭게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FLEX센터의 외국어 능력 평가는 국내 주요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에서 채용, 인사 고과, 승진, 해외 파견 대상자 선발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문의 02-2173-2530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http://flex.hufs.ac.kr)

#### 전국 초·중·고등학교 외국어경시대회 일정 안내

한국외대와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외국어경시대회가 올 6월 23일(일) 오후 3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대회는 올해로 30년(초등 경시는 17년째)을 맞이한 국내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외국어경시대회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듣기·읽기 능력을 평가해 최종 종합 성적 우수

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최종 종합 성적 우수자에게는 한국외대 총장상이 수여되고, 응시자 전원에게 '성적인증서'를 발급한다.

문의 02-2173-2532, 2529 **홈페이지** <http://eflex.hufs.ac.kr>

### 통번역센터

#### 국내 최고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

통번역센터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과 학부와의 연계를 통해 15개가 넘는 언어에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은 올 6월까지 300여 건의 11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고, 번역은 100여 건의 17개 언어(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카자흐스탄어, 우즈베키스탄어, 터키어, 키르기스어, 카탈루냐어)의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문의 02-2173-2566, 2569 **홈페이지** <http://hufscit.com>

### 한국문화교육원

#### 여름학기 한국어 정규과정 및 통번역을 위한

##### 한국어 과정 개설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연 4회, 10주로 구성된 한국어 정규과정과 고급 한국어 구사를 위한 필수 과정으로 알려진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여름학기는 6월 4일(화)부터 8월 13일(화)까지 진행되며 현재 등록 인원은 550여 명이다. 우리 교육원에는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 외에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50여 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으며,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말하기 중심'의 수업으로 외국인 사이에 인기가 높다.

문의 02-2173-2260

#### 여름학기 한국어 단기과정 개설

한국어문화교육원은 7월 24일(수)부터 8월 21일(수)까지 여름학기 한국어 단기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여름학기 단기과정 접수 마감일은 6월 21일(금)까지다. 한국어 단기과정은 한국어 공부 외에 한국 음식 만들기, 인장 만들기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이 매주 이뤄진다.

문의 02-2173-2610

#### 한국어 위탁·특별교육과정 실시

한국어문화교육원은 한국어 정규과정 외에 싱가포르, 태국, 일본, 미국 등 해외 대학 특별과정을 진행한다. 올 하반기에는 일본 천리대학 한국어 특별과정, 일본 니가타현립대학 한국어 특별과정, 일본 오사카조가쿠인대학 한국어 특별과정, 일본 호세이대학 한국어 특별과정, 일본 메지로대학 한국어 특별과정 등 다양한 한국어 특별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 현재 사우디 의료진 펠로우십 특별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에는 중국 학도학원 특별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2173-2610

#### 제44기 여름학기 한국어교원양성과정(KFL) 개설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연 2회 여름·겨울에 5주 과정으로 이뤄진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이하 KFL)을 개설한다. 이번 여름학기는 7월 1일(월)부터 8월 2일(금)까지 진행되며, 모집 기간은 6월 10일(월)부터 6월 17일(월)까지다. KFL은 국어기본법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인증에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언어권별 맞춤 수업을 진행한다. 수료 후에는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인증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본인의 단기 강사 활동 및 채용 가산점 같은 특전이 주어진다.

문의 02-2173-2610

### TESOL전문교육원

#### 2019학년도 후기 일반전형 진행 및 특별전형 안내

TESOL전문교육원은 2019학년도 후기 일반전형(1차 모집)을 지난 5월 19일(일) 본관에서 진행했다. 5월 7일(화)부터 14일(화)까지 지원한 많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입시전형은 자료 읽기와 면접 전형으로 진행됐으며, 이 과정을 통과한 인원은 올 후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2차 모집인 특별전형은 7월 8일(월)부터 15일(월)까지 접수받으며, 7월 20일(토) 입학전형이 치러질 예정이다.

#### 2019학년도 후기 특별전형 대비 입학설명회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2019학년도 후기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이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7월 6일(토) 오후 2시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 강의실에서 입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TESOL 과정 소개, 특전, 입시 과정 안내(특별전형), 해외 인턴십, 교수진 및 수료생과의 만남, 상담회 등의 행사가 포함될 예정이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당일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기념품 및 리플릿, 모집요강을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기간 : 2019. 07. 08 ~ 15**      **전형일자 : 2019. 07. 20**

\*수업기간 : 2019년 9월 2일(월)부터 2020년 1월 말(약 5개월)  
\*지원자격 : 국내외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2019년 8월 졸업예정자 단, 전/현직 영어교육 관련 기관 교사는 2/3년제 대학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도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www.tesol.ac.kr](http://www.tesol.ac.kr))를 통해 확인

#### 2019년 여름방학 동대문 영어체험교실 진행

한국외대와 동대문구청이 함께하는 2019학년도 여름방학 동대문 영어체험교실이 7월 29일(월)부터 8월 9일(금)까지 12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원어민과 함께 기본적인 영단어부터 팝송, 스포츠, 미술, 토론 등 다양한 분야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체험교실은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구성해 동대문 구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여름에도 사전 레벨테스트를 통해 수준별로 반을 구성해 차별화된 수업 방식과 다양한 활동 중심의 영어 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국제사회교육원/영재교육원

#### 코닝정밀소재 영어집중과정 개설

국제사회교육원은 코닝정밀소재 임직원을 대상으로 'SGCP Intensive English Course'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6주 합숙 과정으로 진행되는 본 과정은 Listening, Writing, Communicative Topics, Discussion 등의 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교육생의 어학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아울러 글로벌 비즈니스 실무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국제사회교육원은 2005년부터 코닝정밀소재의 영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3회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 2019학년도 한국외대 영재교육원 정규과정 개설

한국외대 부설 영재교육원은 4개 학급 60명 정원의 정규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각 학급은 15명 정원으로 영어 교과 3학급, 수학 교과 1학급으로 구성된다. 2019학년도 정규과정은 3월에 개강해 모두 8회 수업을 진행했고, 6월 22일(토) 1학기 과정을 마무리하는 산출물 발표를 진행한다. 우리 대학 영재교육원은 학생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며, 창의성과 영재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과 멘토링 등의 비교과 활동을 진행한다.



###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국내 유일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교인 사이버한국외대가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부·학과는 외국어 계열인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와 사회 계열인 경영 회계학과, 지방 행정·의회 학과, 마케팅·광고학과, 산업안전학과 등 모두 10개 학부·학과다. 1차 모집 기간은 6월 1일(토)~7월 11일(목), 2차 모집 기간은 7월 29일(월)~8월 16일(금)이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인생 제2막을 준비하거나 자기계발, 재교육 등을 목적으로 입학하는 학생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한국외대 졸업자 및 졸업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입학하면 입학금 면제와 입학 후 1년간 수업료 2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입학 홈페이지(go.cufs.ac.kr)나 전화(02-2173-2580)로 확인할 수 있다.

###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2019 CUFS 봄나들이' 성료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5월 18일(토)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춘계 학생 행사 '2019 CUFS 봄나들이'를 열었다. CUFS 봄나들이는 학생 및 학생 가족과 친구, 교직원 등 사이버한국외대 구성원 모두가 어우러져 소통과 화합하는 자리로, 매년 총학생회와 뜻을 모아 진행한다. 이번 봄나들이에도 많은 학생이 참석해 교수, 선후배, 동기, 함께한 가족과 녹음이 가득한 수목원에서 봄날의 정취를 만끽했으며, 다채롭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시종일관 밝은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협력 협약 체결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3월 20일(수)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다국적 언어(외국어) 능력 향상과 특성화고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특성화고 국제화 교육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공동 수행과 인적·물적 자원 교류 협력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다방면에서 상호 협력과 지속 교류를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사이버한국외대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특성화고 학생이 외국어 능력과 실전 직무 역량을 두루 갖춘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부 지원 '2019년 직업·직무 교육과정 개발' 사업 선정

사이버한국외대는 '2019년 성인 학습자 직업·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 사업에 선정돼 지난 4월 16일(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및 한국원격대학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직업·직무 교육과정 개발' 사업은 성인 학습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사이버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으로, 사이버한국외대는 '일본 취업'을 위한 일본어 6개월 마스터 과정을 제안해 선정됐다. 이로써 일본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의 성공적 취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 콘텐츠를 개발·운영한다.



### '고졸인재 일자리콘서트'에서 학생 맞춤형 진학 컨설팅 실시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3월 20일(수)과 21일(목)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고졸인재 일자리콘서트'에 참가했다. 그 자리에서 일·학습 병행, 선취업·후진학 등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고교생에게 학생 맞춤형 진학 컨설팅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부스를 방문한 많은 학생과 선생님 등은 일과 학습 모두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인 사이버대학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 한국어학부,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과정 개설

사이버한국외대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사회 통합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배양하고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문화 사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9학년도 1학기부터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 과정을 개설했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한국사회의 이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다. 법무부 인증 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 TESOL대학원, 몽골국제대학교 외국어교육대학원과 학점 교류 시행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와 몽골국제대학교는 지난 5월 23일(목) 두 대학의 대학원간 학점 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과 몽골국제대학교 외국어교육대학원은 상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하고, 2019학년도 2학기부터 학점 교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식출판콘텐츠원

# 새로 나온 책

## HUFS Books

### 관계의 인문학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고찰하고, 관계의 능력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은 삶의 관건이 아닐까. 저자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철학과 문학의 원전 텍스트 등의 자료를 수록한 점이 눈길을 끈다.

김세원 / 282면 / 신국판 / 20,000원

### 4차산업혁명과 CRM

엄청난 양의 고객 데이터 활용은 기업 경쟁에 중요한 요소며, 이를 활용한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개인에 적합한 차별적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개함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업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한다. 이 책은 고객 관계 관리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중요시되는 CRM 분석 활동을 소개한다.

조준서 / 424면 / 신국판 / 20,000원



### 아카이브 콘텐츠 아카이빙(개정판)

아카이브는 장소로서의 기록보존소 또는 기록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는 인간 경험의 증거물로서 지식의 원천을 이루며, 아카이브는 이러한 아카이빙의 결과로 기록을 의미할 때 아카이빙의 대상이 된다. 이 책에서는 기록의 수집, 평가, 선별, 분류, 정리, 기술, 보존과 서비스 과정을 이론적이고 실무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노명환 외 / 296면 / 46배판 / 22,000원

### 호랑이 그리고 다른 시들, 께다르나트 싱 시선집

3부로 구성된 시선집이다. 1부는 1947년 독립 이후 당시 인도 사회의 시대적 분위기를 잘 드러낸 시, 그리고 청년 시인으로서 자연 묘사와 내적 갈등을 그린 시 3편이 담겨 있다. 2부에는 시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 1980년대 이후의 시 27편을 선정하고, 주제별로 분류해 수록했다. 3부는 저자의 대표작 중의 대표작이며,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된 연작시 〈호랑이〉 21편 전체를 실었다.

김우조 / 324면 / 18,000원

### 논거와 논증

논거와 논증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입문서이자, 논증 텍스트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법을 보여주는 지침서다. 1장은 논증을 위한 심리적, 인식론적, 문화적 측면의 문제를 다룬다. 2장은 논리학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연역 및 귀납 논거의 중요한 형식을 소개한다. 3장은 다양한 예문 텍스트에 사용된 논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증 분석을 돕는 질문과 지침을 정리한다.

Klaus Bayer, 신형욱, 국세라 / 376면 / 신국판 / 25,000원

### 중국 기초 고문

백화운동 이후 고대 중국어는 입말이 아닌 서면어로 활용돼 문언문 또는 고문이라 칭한다. 고문은 중국 민족의 사상과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어 언어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형성하는 근거가 되어왔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했고 중국어 교육 또한 널리 보급되던 반면 중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간과한다. 저자는 중국의 사회 문화를 더 잘 이해하려면 고문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현주, 정호준 / 304면 / 신국판 / 23,000원

### 퍼스 철학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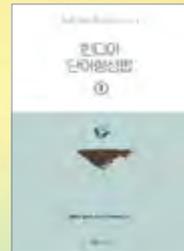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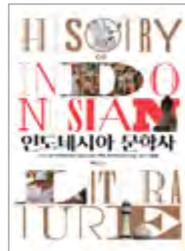
퍼스 철학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가이드다. 드발의 책은 퍼스 기초학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퍼스 기초 사상의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것의 역할을 진실하게 한다. 기초 개념에 대한 철학적 토대와 기초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현상을 분석, 설명하는 경우 이 분법적이며 자의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코르넬리스 드발, 이윤희 / 312면 / 신국판 / 18,000원

### 인도네시아 문학사

이 책은 문예학의 일부인 문학이론과 문학평론을 포함해 문학에 나타난 민족의 정신과 상상력, 풍속과 사회상 등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 연구하는 학문으로 문학 세계를 구체화한다. 특히 한 시대에서 또 다른 시대로, 한 문학 세대에서 다음 문학 세대로 또는 문학의 10년 주기에서 다음 문학의 10년 주기로의 문학 작품의 탄생, 성장, 발전의 연대기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안트 무지안토, 아미르 파우디, 김장경 / 376면 / 신국판 / 28,000원



### 태한동사구문학습바이블

태한동사구문학습바이블은 태국어 동사 중 사용 빈도가 높은 동사를 중심으로 선별해 각 동사의 다양한 한국어 대응어를 제시하고, 각 표제어별로 구문에서 사용할 때 주지해야 할 문법 내용을 한국어로 자세히 설명한다. 또 한 표제어당 용례 네 개를 제공해 학습자가 다양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의미와 쓰임을 깊이 있고 폭넓게 익힐 수 있는 교재다.

박경은, 쉰�파펀 분롱, 정환승, 빠릿 인센 / 688면 / 크라운판 / 30,000원

### 힌디어 단어형성법 I

힌디어 단어의 9할은 산스크리트어와 관련된 단어다. 산스크리트어는 반은 따뜨삼이고, 나머지 반은 따드 바브가 차지한다. 전자는 산스크리트어의 단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단어고, 후자는 오랜 시간을 거쳐 그 형태가 변형된 단어다. 이 책은 따뜨삼과 관련된 단어 형성법을 다룬 책으로, 동사 유형과 사용 빈도를 고려해 선정한 50여 개의 동사 어근을 대상으로 그 실례를 제시했다.

최중찬, 김용정, D.A.P. Sharma / 336면 / 신국판 / 30,000원



H

U

# Alumni & Donation

HUFS Alumni

HUFS Donation



F

S

### 故 박명석 아름다운공동체 이사장 추도사 동판 헌정식

지난 4월 25일(목)故 박명석(영어 57) 사단법인 아름다운공동체 이사장의 추도사 동판 헌정식이 아름다운공동체 법인 사무실에서 열렸다.故 박명석 이사장은 우리 대학 영어과 교수로 강단에 섰으며, 발전기금과 장학금 기탁으로 우리 대학의 수많은 학생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김인철 총장은 지난해 10월 유족에게 헌정한 추도사를 동판으로 제작해 전달했다. 아름다운공동체는 추도사 동판 헌정식과 함께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으로 2천만 원을 기탁했으며, 우리 대학은 추후 참전용사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2019 한국외대 ITC Forum 개최

한국외대 ITC(국제무역인클럽)동문회(회장 조규태/포르투갈어72)는 지난 4월 26일(금), 코엑스 인터콘티넨털호텔 알레그로 홀에서 영화와 음악을 주제로 한 상반기 포럼을 개최하였다. 1부 시인 김선호(중국어79)동문의 라틴 음악이야기, 2부 국민배우 안성기(베트남어70)동문의 영화이야기, 그리고 만찬 순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약 100명의 ITC 동문들이 참석하여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총동문회와 함께하는 '멘토링 킷오프 X 멘티 OT'

우리 대학 총동문회에서 주관하는 '멘토링 킷오프 X 멘티 OT'가 5월 20일(월) 오후 7시에 서울캠퍼스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총 160여 명의 멘토와 멘티들이 참석했으며, 김인철 총장, 민동석 동문회장의 축사 및 외대동문합창단의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외교관, 외국계 기업, 기자 등 다양한 직군의 멘토들이 참석했다. 우리 대학과 총동문회는 선배-후배 간 멘토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8년 HUFSxHUFS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졸업생 선배 멘토 67명과 재학생 멘티 129명, 총 235명의 멘티와 멘토가 참가하여 진행되고 있다.



### 곽태환 동문(영어 57), 경남대 명예정치학 박사 학위 받아

곽태환 동문(전 통일연구원 원장/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경남대 석좌교수)은 6월 4일(화) 경남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정책 대안 제안, 학술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이다. 한편 곽태환 동문은 300편 이상 학술 논문, 칼럼, 시론을 저술하였으며 31권의 국영문 저서, 공저, 편저자이다.



# Alumni News

## HUFS Alumni

### 금융

원창선	컴퓨터공학87	신영증권 IT센터 상무
이재연	플란드89	신영증권 운용지원부/자산운용부 이사대우
배성수	아랍85	한양증권 경영지원실장 상무대우

### 기업

양상범	프랑스83	KT&G 제주본부 부부장
박임석	국제통상92	NHN여행박사 대표이사
서재환	경제73	금호산업 대표이사
우중분	프랑스82	대성에너지 대표이사
강병수	일본86	팬스타그룹 최고정보책임자 겸 팬스타엔터프라이즈 서울지점 신규사업부 대표

### 언론

양승관	일본86	CBS TV제작국 편성부장
김창용	신문방송86	EBS 마케팅기획부장
정선경	영어교육83	EBS 글로벌사업부장
정성욱	정치외교89	EBS 콘텐츠기획센터 센터장
신철균	프랑스88	KBS 제작2본부 광고국 광고기획부장
장현규	스페인81	SBS 자산개발담당이사
박순표	독일90	YTN 보도국 편집3부장
한상준	독일93	건설경제신문 편집국 산업1부장
박준철	영어82	스타뉴스 대표이사
임정호	국제통상80	에너지경제신문 사장 겸 편집장
강중훈	신문방송96	연합뉴스 문화부 차장
안수훈	행정82	연합뉴스 편집국 전국·사회에디터
양정우	스페인94	연합뉴스 문화부 차장
윤수	컴퓨터공학86	연합뉴스 서비스개발부장
이희열	프랑스80	연합뉴스 사진부 선임
장재은	영어95	연합뉴스 국제뉴스1부 차장
이정원	영어92	연합인포맥스 자본시장부장
김철홍	이란79	한겨레신문사 독자서비스국 제휴사업데스크 부장

### 정부기관

양성태	영어93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보건정책과장
이승도	공공정책(석)05	국방부 해병대 사령관
마광열	영어83	법무부 검찰관
김인철	스페인(석)87	외교부 대변인
김관수	아랍78	춘천시 서울사무소장
박용한	프랑스85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 정부신하기관

최창식	법학8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매관리실장
송현혜	법학97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부 NET팀장

### 학계

함윤직	미인84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교학과장
신양숙	영어76	인천대학교 교무처장

### 기타

유철근	경영8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
김태한	정치외교83	대구메트로환경 사장
이희진	영어83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김경만	영어82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겸 고용지원본부장
나상훈	영어80	서울관광재단 경영본부장



**제10회 Matthew D. Lee & Katherine H. Lee 장학금 수여식**  
 지난 4월 17일(수) 우리 대학 대학본부 203호 이덕 선회의실에서 '제10회 Matthew D. Lee & Katherine H. Lee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열 번째 장학금을 전달한 이덕선 해외동문연합회 이사장(독일어 58, Allied Technology Group, Inc. 회장)은 현재까지 Matthew D. Lee & Katherine H. Lee 장학금(약칭: 이덕선 장학금) 명목으로 약 22억 5천만원을 우리 대학에 기탁했으며, 이번 장학금 수여식을 포함해 10년 동안 장학금 수여를 통해 학생 67명에게 3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수여했다.



**4.19 학생 민주혁명 59주년 기념식 및 장학금 수여식**  
 지난 4월 19일(금)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4.19 학생 민주혁명 59주년 기념식 및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민주주의에 대한 거룩한 의지로 피땀 흘려 성취한 4.19 학생 민주혁명 59주년을 기념하고 희생 영령을 기리기 위해 4.19민주혁명동지회 회장 류제봉(영어 57)과 김수형, 신광섭, 허철부, 이기후, 홍용기 동문이 방문했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4.19 정신을 이해하고 학업 성취가 뛰어난 이해주스페인어 16), 이성연(통계학 18)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박병식 강의실 헌정식**  
 지난 5월 1일(수) 우리 대학 교수학습개발원 203호에서 박병식(포르투갈어 67, Bradcal Inc. 회장) 강의실 헌정식이 진행됐다. 박병식 회장은 우리 대학에 학교 장학금과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을 기탁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 대학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교수학습개발원 203호를 '박병식 강의실'로 지정해 헌정했다. 이날 김인철 총장은 "우리 대학에서 가장 끈끈한 선후배 사이를 자랑하는 학과 중 하나인 포르투갈어과의 경사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 귀한 뜻으로 후배를 위해 기부하신 박병식 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회장님께 강의실을 헌정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스페인어과, 장학금 전달식 및 이상욱 동문회장 초청 강연**  
 스페인어과는 지난 5월 2일(목) 서울캠퍼스 대학원 BRICS홀에서 장학금 전달식 및 동문회장 초청 강연을 마련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경희 학과장은 "스페인어과에는 모두 7개의 장학금(총동문회, 발전기금, PRODIOSA, 박철, 이석주, 지학사, 81김순모·오상훈)이 있다. 이번에 학생 18명에게 장학금 2천 5백만원을 전달했으며, 후배를 위해 장학금을 기부한 선배들에게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욱 동문회장(스페인어 75, (주)화인석재 대표)은 "스페인어는 유용한 언어로, 후배들도 열심히 하면 사회 곳곳에 진출하기 수월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영 ㈜신아주 회장,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지난 2019년 5월 27일(월) 문재영(영어 71) ㈜신아주 그룹 회장이 우리 대학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탁하였다. 모교 발전에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보여왔던 문재영 회장이 오랜만의 학교 방문에 이어 귀중한 재원을 회사하여 후배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문재영 회장은 "우리 후배들이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문재영 회장이 이끄는 ㈜신아주 그룹은 1981년 설립 이래 서울 동북부를 아우르는 터미널 사업에서부터 동북부 랜드마크 건설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 경영의 최전방에서 활약하고 있다.



**장인탁 J&J 회장,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장인탁(스페인어 76)J&J 회장이 지난 5월 28일(화) 우리 대학에 학교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했다. 장인탁 회장은 지난 27년 동안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수출입 기업 J&J를 이끌어 도미니카 시장을 석권해왔으며, 우리 대학 스페인어과 동문으로서 외대의 글로벌 위상을 높였다. 장인탁 회장은 뜨거운 음식을 먹는 문화가 전무하던 도미니카에 인스턴트 라면을 보급화하는 혁신적 행보를 보였다. 우리 대학은 학교 발전과 인재 양성에 든든한 지지를 보낸 장인탁 회장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지난 6월 4일 교수학습개발원 202호를 '장인탁 강의실'로 헌정했다.

# Donation News

2019. 3. 1. - 2019. 5. 31.

## HUFS Donation

성명	소속	약칭합계(원)
LI MEILIAN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2	100,000
강현주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6	100,000
고예림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7	100,000
고진영	통번역대학원(석) 한영과 17	100,000
구민구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02	200,000
권설아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3	100,000
권준호	법학전문대학원(박) 16	3,600,000
김봉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6	1,000,000
김광환	통번역대학원(석) 한노과 09	100,000
김성진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04	300,000
김영주	통번역대학원(석) 한사전공 07	300,000
김유미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98	100,000
김유진	통번역대학원(석) 한서과 16	100,000
김지연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8	100,000
김태현	통번역대학원(석) 한아과 14	100,000
김정진	글로벌 CEO 97	100,000
김효선	통번역대학원(석) 한영과 10	100,000
남윤주	통번역대학원(석) 한불과 98	100,000
마용찬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11	300,000
명정하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8	100,000
문재영	영어대학 영어과 71	100,000,000
박상욱	영어대학 영어과 85	200,000
박소은	통번역대학원(석) 한불과 93	100,000
박소은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7	100,000
박유진	통번역대학원(석) 한영과 14	100,000
박인성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0	300,000
박인숙	통번역대학원(석) 한아과 90	200,000
박재영	상경대학 경제학과 16	1,000,000
박재진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74	6,563,500
박정민	통번역대학원(석) 한노과 14	100,000
배문정	통번역대학원(박) 한영전공 15	100,000
백인수	통번역대학원(석) 한아과 06	300,000
손원호	통번역대학원(석) 한아과 07	200,000
송정민	통번역대학원(석) 한아과 09	100,000
수가지외메이준	통번역대학원(석) 한일과 87	100,000
신미라	통번역대학원(석) 한영과 80	200,000
안진일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06	300,000
안치현	통번역대학원(석) 한영과 02	100,000
안희연	통번역대학원(박) 한아전공 15	100,000
양해금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7	100,000
연동숙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95	100,000
오주아	통번역대학원(석) 한서과 16	100,000
오주연	영어대학 EICC학과 17	300,000
오예희	통번역대학원(석) 한노과 16	600,000
유수경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0	100,000
윤미현	통번역대학원(석) 한불과 12	100,000
윤승진	통번역대학원(석) 한서과 05	100,000
윤윤하	통번역대학원(석) 한아과 82	200,000
이보라	통번역대학원(박) 한사전공 15	100,000
이보람	통번역대학원(석) 한아과 16	100,000
이석주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79	80,000,000
이소영	통번역대학원(석) 한서과 04	100,000
이승리	통번역대학원(석) 한서과 16	100,000
이영인	통번역대학원(석) 한서과 16	100,000
이영주	통번역대학원(석) 한일과 95	100,000
이예지	통번역대학원(석) 한아과 12	100,000
이유림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06	300,000
이은영	통번역대학원(박) 한영전공 09	100,000
이은화	통번역대학원(석) 한아과 09	100,000
이지현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3	100,000
이호덕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70	10,000,000
이호진	통번역대학원(석) 한서과 16	100,000
임은선	통번역대학원(석) 한아과 13	100,000
임정호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80	200,000
임현희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5	100,000
장경인	통번역대학원(석) 한서과 16	100,000
장유경	통번역대학원(석) 한불과 06	100,000
장인택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76	100,000,000
정은경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93	1,000,000
정주원	통번역대학원(석) 한영과 13	100,000
정효운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8	100,000
정희결	국제지역대학 브라질학과 07	300,000
조연희	통번역대학원(석) 한불과 07	200,000
최미지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4	100,000
최수지	통번역대학원(석) 한영과 14	100,000
태정희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0	100,000
편해원	통번역대학원(박) 한불전공 01	100,000
한성숙	통번역대학원(석) 한사전공 16	200,000
홍경아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94	200,000
황윤선	통번역대학원(석) 한독과 93	100,000
황한주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83	11,772,106

성명	소속	약칭합계(원)
곽순례	외대교수	100,000
권경애	외대교수	850,000
김광섭	외대교수	1,500,000
김유조	외대교수	10,000,000
김유강	외대교수	1,500,000
김지현	외대교수	1,500,000
박민영	외대교수	250,000
사재근	외대교수	250,000
손종철	외대교수	675,000
이보화	외대교수	10,000,000
이창현	외대교수	6,000,000
정상철	외대교수	250,000
최호성	외대교수	2,500,000
영교80학번 동교회	동문단체	1,100,000
영교81학번 동교회	동문단체	2,000,000
영교82학번 동교회	동문단체	3,000,000
영교88학번 동교회	동문단체	1,000,000
한국외대 사학과 동문회	동문단체	500,000
한국외대 재직직원동문회	동문단체	411,000
한국외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설기관	17,345,330
글로벌캠퍼스 신우회	교내단체	1,000,000
통번역대학원 교수일동	교내단체	1,600,000
한국외대 여교수회(누리회)	교내단체	1,000,000
ARS	기타(개인)	9,000
송영진	기타(개인)	2,000,000
이윤경	기타(개인)	2,000,000
이현진	기타(개인)	3,360,500
(재) 동원육영재단	기타(기업)	126,000,000
(주)교보문고	기타(기업)	3,700,000
(주)로리양	기타(기업)	5,000,000
(주)세진유통	기타(기업)	12,000,000
(주)시공미디어	기타(기업)	1,000,000
(주)신승상어학원	기타(기업)	550,000
(주)아이티엔	기타(기업)	2,101,196
CJ대한통문	기타(기업)	14,118,000
국민은행 이문동지점	기타(기업)	5,000,000
네이버 주식회사	기타(기업)	5,000,000
메가스터디교육(주)	기타(기업)	116,437,700
문화산업(주)	기타(기업)	2,500,000
부성사점	기타(기업)	19,750,000
키다리영아사	기타(기업)	1,500,000
하이테크필라(주)	기타(기업)	4,000,000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	기타(기업)	2,250,000
행복한 낚시	기타(기업)	1,000,000
(재)동화산업장학재단	기타(단체)	40,000,000
(재)상상꿈장학재단	기타(단체)	11,700,000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장학재단	기타(단체)	7,500,000
공군사령부	기타(단체)	3,360,500
광자학원	기타(단체)	\$2,000,000
광주시민장학회	기타(단체)	1,410,500
노영문화재단	기타(단체)	900,000
대순진리회 수색방면	기타(단체)	12,687,500
동원그룹 리더십장학재단	기타(단체)	9,000,000
메디칼장학재단	기타(단체)	24,000,000
삼성복지재단	기타(단체)	19,575,000
서천소방서	기타(단체)	570,000
성남시장학회	기타(단체)	3,360,500
성운문화재단	기타(단체)	7,216,000
성혜장학재단	기타(단체)	1,200,000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	기타(단체)	1,500,000
신리문화장학재단	기타(단체)	11,212,000
아산소방서	기타(단체)	570,960
영풍문화재단	기타(단체)	1,800,000
예산소방서	기타(단체)	199,000
윤문장학회	기타(단체)	7,000,000
우덕재단	기타(단체)	27,809,000
이스테파노-장학재단	기타(단체)	3,000,000
재단법인 인촌	기타(단체)	3,000,000
재단법인 한국방정철재단	기타(단체)	2,100,000
진천소방서	기타(단체)	786,480
춘천소방서	기타(단체)	1,125,790
충남 해군 본부	기타(단체)	3,360,500
하림장학재단	기타(단체)	2,000,000
한원장학회	기타(단체)	3,000,000
합안소방서	기타(단체)	719,280
한미육영재단	기타(단체)	17,812,500
황애장학회	기타(단체)	16,802,500
홍신장학재단	기타(단체)	6,000,000
효림장학재단	기타(단체)	8,000,000
익명		30,000,000
익명		30,000,000



우리 대학에서 보내드리는 소식지,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 발송 및 연락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성명, 학과, 학번,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발송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1의 글로벌 대학으로서 개교 65주년을 맞이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취 거부 연락 주실 곳  
발전협력팀 전화 : (02)2173-2756 이메일 : hufs5@hufs.ac.kr



점선 선

보내는 사람  
\_\_\_\_\_  
\_\_\_\_\_  
\_\_\_\_\_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8.9.2~2020.12.27  
동대문우체국  
제40122호



받는 사람  
\_\_\_\_\_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_\_\_\_\_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 HUFS-TAD Global Leader Program

글로벌 시장을 내 손 안에 펼치고 싶습니까?  
해외파견 인력을 위해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십니까?

한국외대의 독보적인 외국어-지역학 교육 프로그램과  
국내 최대 기업의 글로벌 인력양성 노하우를 가진 TAD가 결합하여  
귀사에 최적의 인력 육성 솔루션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글로벌 리더의 필요 역량 기반 교육 프로그램
- 해외 주재원, 법인장 파견 예정자, 해외지역전문가 교육
- 글로벌 리더의 필요 역량 진단, 양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사회교육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LOBAL LEADERSHIP ACADEMY



문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사회교육원 031-330-4808~10 (주)태드솔루션 02-594-2022



**HUFS**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 031.330.4114